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
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믿음의 지도자
를 세울 수 있도록 모든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
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
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말씀을 자기에게 주장하는 자세
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2b-3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1월 30일 (토) 제 156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2016 미 대선, 앞치락뒤치락 오리무중

퓨리서치센터, '대선후보에 대한 유권자 시각' 조사 보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인들이 대선 유력 후보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밝혔다 (Voters Skeptical That 2016 Candidates Would Make Good Presidents: Highly polarized reactions to Trump, Clinton becoming president).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성인 2,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시각' 조사에서 대다수 유권자가 여야 대선후보 9명 모두를 '좋은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나쁜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대선의 시작을 알리는 아이오와 코커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월 대선에 출마할 민주/공화 양당 후보를 뽑는 주별 예비선거가 시작됨과 동시에 백악관을 향한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어느 대선보다도 아웃사이더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이번 선거를 앞두고 '버니 샌더스 대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선전이 시작될 때만 해도 예측 못했던 일이다. 샌더스의 풀뿌리 바람과 트럼프의 막말은 민의를 더 이상 대변하지 못하는 미국 양당제의 문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양당 예비선거의 관련 포인트들을 짚어본다.

미연론, 대선 풍향계 아이오와 코커스 승자 가능 양당 후보들 예측

먼저 퓨리서치 센터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자.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당선될 경우 '좋은(Good)' 또는 '훌륭한(Great)'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답한 유권자의 비율은 35%에 그쳤지만 '나쁜(Poor)' 또는 '형편없는(Terrible)'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비율은 44%에 달했다. 18%는 '평균적인(Average)'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힐러리의 민주당 경선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 역시 '좋은' 또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한 응답자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반면 '나쁜' 또는 '형편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비율은 35%에 달했고, 응답자의 22%는 '평균적' 대통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의 대세로 떠오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는 '좋은' 또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한 비율은 31%인 반면 '나쁜' 또는 '형편없는'의 비율은 52%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응답자의 부정적 인식이 9명 후보 중 유일하게 50%를 웃돌았다.

공화당 2위 주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의 경우, 31%가 '좋은' 또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한 반면 31%는 '나쁜' 또는 '형편없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퓨리서치 센터는 "유권자들은 2016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 민주 양당 후보들의 경선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앞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 루비오, 샌더스

년 대선 후보들이 과연 좋은 대통령이 될지에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아이오와 당원대회를 관측해본다.

37기 연속 집권을 노리는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대세론"이 "클린턴 2패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샌더스 후보의 돌풍이 거세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표방하는 샌더스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려면, 2월1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 9일 뉴햄프셔 프라임머리(예비선거)에서 모두 이겨야 한다.

두 곳 중 한 곳에서라도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면 샌더스 돌풍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어렵다. 뉴햄프셔에서는 샌더스가 우세한 반면, 아이오와에서는 두 후보가 앞치락뒤치락한다.

21일 CNN/ORC 아이오와 여론조사에서는 샌더스가 앞섰고 이튿날 로라스칼리지 조사에서는 힐러리가 앞섰지만 전반적으로 샌더스가 상승세다. 샌더스는 지난 17일 아이오와 코커스 전 마지막 TV 토론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그 후 주류언론들이 주목하고 풀뿌리 지지층이 분발하면서 상승세를 탔다. <3면으로 계속>

갑작스런 갈등 회피하지 말라!

리더십저널, 공동체내 갈등국면 해소 위한 제안 소개

가장 따뜻하고 교제가 깊은 공동체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깊은 은혜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마디 말로, 예측 못한 행동으로, 혹은 지난 상처를 건드림으로 분위기가 가라앉고 냉랭한 관계, 서로 미워하는 상황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공동체에 불현듯 찾아오는 갈등, 리더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우리가 가장 쉽게 취하는 태도는 '회피'다. 이는 우리가 갈등을 가장 먼저 접하는 어린 시절부터 습득한 방법이다. 당시 아직 어리고 미숙한 우리는 위험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피하는 것이 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좋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미뤄왔던 문제들이 한순간 해결해야 하는 쓰나미가 되어 우리를 덮치게 된다.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함께 의사결

가까울수록, 공동체 성장할수록 많아져 이해, 인정, 양보, 인내... 현안에만 국한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직면한다. 피하면 다시 마주치지 않을 문제도 있지만, 피하는 것은 임시방편인 문제들이 많아진다. 소그룹의 갈등 역시 피해서는 안 될 종류의 문제이다.

갈등을 피하면 피할수록, 그것은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관계를 갈라먹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갈등을 피하는 것을 평화의 행동, 양보의 행동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미덕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당장 문제가 발

정을 하고 사역해야 하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다른 말로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수록, 갈등의 여지는 많아진다. 갈등을 회피하기만 하던 사람에게 이는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갈등의 여지가 많아진다는 것은 너무 역설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등을 직면하고 부딪쳐 해결해 오던 사람에게 이는 공동체가 성장했기에 새로 찾아온 기회들로 보인다. <4면으로 계속>



ATS 인가 온라인 100% 목회학 석사 (M.Div) 과정

성서학 학사 /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 / 목회학 박사
기독교상담학 학사 / 석사
유아교육, 가정상담 수료증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웰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웰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5 wlad@wmu.edu, 213) 368-1005



2면
2016 지구촌, IS보다 무서운 위협들과 맞서 있다!



13면
고난의 신학: 욕기에 대한 묵상 이승현 박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3면
신교의 창 송종록 목사



16면
특별기고: 청년을 살리자 최순환 목사

제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3rd Missional Church Seminar

2016.3.14(월)-16(수)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The Church Called and Sent to the World



한국일 교수

신교학
장로회 신학대학교
논문: 선교적 교회론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과 원리들
역서: 신교학 사전(공역)
저서: 신교학 개론
세계를 품는 교회들



배현찬 목사

주예수교회 담임
DSMC 원장
KWMC 공동의장
NCKPC/PCUSA 총회장
연세 대학교 연합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역임
저서: 사회선교는 어떻게 리더십은 어떻게



신광섭 교수

신교적교회
Intercultural Studies
Visiting Professor of Missional Church Education,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노승환 장로

주예수교회 장로
심장내과 의사
단기 및 전문인 선교사역



박태은 장로

주예수교회 장로
지역사회 선교사역
선교위원장

지역사회선교 견학 및 영상(Practicum) 노숙자 숙박 사역(CARITAS/Homeless Shelter), 노숙자 급식 사역(Monroe Park/Soup Kitchen), 빈민촌 주택보수(Project: Homes/Renew Crew), 산골빈민촌사역(Appalachian Service Project), 지역사회축제 (Intercultural Music Festival, Korean Food Festival)

숙박 Four Point Sheraton Hotel **등록비** \$100 (교제 및 숙식), 선교사 (등록비면제)

등록 주예수교회 전화 및 홈페이지 (www.ljkc.org)

주최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원 (DSMC) **주관** 주예수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PCUSA)

협력 센트럴 신학대학원 (CBTS/D.Min Program) **후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C)

읍선: 워싱턴 세이비어 교회 탐방 및 관광 (수요일 오후)

주예수교회/디아스포라 사회선교원 (DSMC) |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

2016 지구촌, IS보다 무서운 위협들과 맞서 있다!

뉴스위크, 인류 생존과 연관된 지구촌 5가지 위협 소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의 횡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극단주의 무장 세력은 대단히 현실적인 위협이다. 하지만 그들이 인류에 제기하는 광범위한 위협은 어쩌면 과대포장 됐을 지도 모른다. 레바논 베이루트로부터 프랑스 파리에 이르는 테러 공격은 그들이 지배지역을 훨씬 뛰어 넘어 살상을 저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무장단체는 능란하고 효과적인 미디어 전술로 자신들의 잔학행위가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IS는 대체로 오합지졸의 게릴라 집단이다. 그들이 장악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정정 불안에 휩쓸렸던 중동 일부 지역의 영토를 고수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에 제기하는 위협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요성을 갖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들 말고도 우리 인류가 훨씬 더 신경 써야 하는 다른 더 큰 5가지 위협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New Year 2016: Five threats to humanity bigger than Isis).

2016년 들어, 총을 휘두르는 저열한 IS무리에 관한 지나친 걱정은 접어두고 대신 인류에 대한 훨씬 더 큰 위협들을 고민해보자. 뉴스위크는 2016년 전 세계가 힘을 합쳐 물리쳐야 할 5가지 더 큰 위협들을 소개했다.

티모시 월시 교수는 BBC 방송에 이렇게 말했다. "MCR-1의 세계적인 확산은 '만일'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다. 그 유전자가 다른 항생제 내성 유전자들과 만나는 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탈항생제 시대가 열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 누군가 가령 대장균에 감염돼 앓아 누워도 사실상 의학적 대처가 불가능해진다."

비만 유행병

WHO는 이제 비만이 세계적인 유행병이 됐다고 판단한다. 1995년에는 세계적으로 비만 성인이 2억 명이었다. 2008년에는 그 숫자가 5억 명에 달했다. 성인 비만은 1980년 이후 2배로 늘었다.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는 암, 심장병, 당뇨병, 골관절염 등 부지기수다.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수백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대다수 비만은 설탕과 지방의 과다섭취 등 크게 잘못



기후변화 위협

지난해 12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로 모든 참가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갖가지 구체적인 목표치도 정했다. 그런 합의에 도달한 건 사상 처음이었다. 서로 등을 두드리며 축하했다. 그러나 실행은 합의와는 또 다른 문제다.

우리는 인위적인 기후변화와 관련된 잇따른 재앙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홍수와 가뭄, 이상

강우량이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만큼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가 지구촌 전역을 강타하게 될 것이다.

항생물질 대재앙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항생제가 탄생하고 21세기 전반에 걸쳐 대량 생산됐다. 그 뒤 페니실린의 퇴치 대상이던 세균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항생제의 약효가 더는 듣지 않는 새로운 내성균 이른바 '슈퍼버그'가 진화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평범한 질병 치료에 항생제를 너무 많이 사용해 내성이 커졌다.

의학연구의 발전은 내성이 커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제 커다란 공중보건 문제가 됐다. 병에 걸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지금껏 치료 가능했던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지고, 치료비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의 재정에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중국에선 이른바 '최후의 수단'이라는 약으로도 퇴치할 수 없는 박테리아가 발견됐다. 이 같은 내성균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MCR-1 유전자'로 불린다. 현재 이 같은 '탈 항생제 세계(post-antibiotic world)'의 현실화에 필요한 핵심적인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 영국 카디프대학 미생물학자

원인이다.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운동 좀 더 해도 예방할 수 있다. 비만은 추가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요즘엔 테러·홍수와 함께 국가적인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여성 비만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셀리 데이비스 영국 정부의 최고보건책임자(CMO)는 진단했다. (3면으로 계속)

①기후변화 ②항생물질 ③비만 ④암 ⑤불법거래
2030년까지 기후변화로 연25만 명씩 추가사망
2014년 암 질병사망자는 IS 희생자의 1,350배

고온, 말라리아 같은 질병,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 건강을 해치는 오염 등등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의미다. 세계의 가장 가난한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30년까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연간 25만 명씩 추가로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예측한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의료비용만도 연간 40억 달러에 달한다. WHO는 이렇게 진단했다. "일부 지역에 지구온난화의 혜택이 있을지도 모른다. 예컨대 기온상승으로 인한 겨울철 동사자 감소, 특정 지역에서의 식량 생산 증가 등이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비할 수 없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는 건강한 사회·환경적 결정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깨끗한 공기, 안전한 식수, 충분한 식량과 안전한 주거환경 등이다."

벌써 미 북동부는 몬스터급 눈 폭풍을 경험하고 있고, 미 서부는 슈퍼 엘니뇨로 이제 엄청난



시론

예수 미니멀리스트 (Jesus Minimalist)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평생 시계 만드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성인식 날 손수 만든 시계를 선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는 여느 시계와는 다른 특별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침은 동(銅), 분침은 은(銀), 초침은 금(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받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시침이 가장 크니까 금으로 만들고, 가장 가늘고 작은 초침은 동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는 "초침이 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초를 잃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지. 그는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과 분

을 아낄 수 있겠나? 세상만사 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고 너도 이제 성인이니만큼 1초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구나."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를 시작할 때는 큰 꿈을 갖습니다. 그러다 연말이 되면 그 꿈에서 자유로운 사람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 더 말할나위 없이 좋지만 그러나 비록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1년 동안 성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떳떳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꿈만 꾸지 성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대해 늘 괴로워하고 갈등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꾸되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의 목표와 비전과 꿈을 지녔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교회와 역사와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게으름도 악이구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게으르지 말자, 이것은 악이다, 최선을 다하여 살자!"고 다짐하며 살아왔고 결과에 대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선과 악"의 분별과 차이는 "충성과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선한 자, 충성된 자의 특징은 "작은 일"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노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인생의 그릇과 지경이 넓어져 가는 축복입니다. 복은 주님이 명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복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해당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금으로 만든 시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큰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교만한 욕심"을 자주 때때로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큰 꿈은 작은 습관, 분명한 의지 등이 선행될 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라 피네는 말합니다.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진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대가를 얻는다"고. 새해에는 내가 바쁘고 기쁜 일보다 주님 때문에 바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초점 맞추는 삶, 그래서 주님이 주목하시고 관심 갖으시는 "거룩한 열망과 부담이 있는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초침을 금침으로 여기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신앙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 자락에 떳떳하게 자유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니멀리스트(Minimali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ZARA의 회장은 여전히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항상 같이 밥을 먹고 단 한번도 개인용 집 무실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50조 기부 선언을 했던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의외로 이들의 삶은 매우 단순하고 평범합니다. 이들은 좋은 스포츠카나 명품 옷과 팬트 하우스 등등을 마음만 먹으면 아주 간단하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들을 싫어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을 따름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애초에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Minimalist)"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은 예수 따라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우리, 팬"(NOT A FAN)이 아니라, 예수를 이 시대에 나의 삶의 자리(Here & Now)에서 재현(Re-presentation)하는 예수의 "제자"(The Beloved Disciple)일 뿐, 가장 행복한 부르심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후회 없이,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들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며, 무엇을 더욱더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지인가? 더 늦기 전에 깨닫는 순간이 가장 빠른 기회임을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관심 갖고 집중하며 살아갈 때, 분명히 올 한해가 우리들에게 더욱더 훨씬 많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한층 더 성숙해져가는 "예수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를 소망하며 Happy New Year 인사를 전합니다.

pastor.eun@gmail.com



개교 30주년 기념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MBA - 리더십 전공 Doctor of Leadership - 사역리더십 전공

MBA Degree (48 Credit hours) Leadership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전공무관

Doctor of Leadership Degree Program

과정: 1. 리더십 박사 학위과정 Doctor of Leadership (48 Credit)

(연구분야: 조직, 교육, 경영 리더십)

2. 리더십 박사 연구과정 DL Equivalent Program

(연구분야: 조직, 교육, 경영 리더십)

자격: 1. 학위과정: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자 (전공에 관계없음)

2. 연구과정: 수업은 동일하며 전문분야 종사자, 학력제한 없음.

2016년 1월 30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학허가를 받는 학생 중 20명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점, 학위취득 방법

- 1) 미국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발행
-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으로 학점 취득 중 언제든지 미국에 유학와서 남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위취득하고 1년 동안은 OPT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기회 가능
- 3)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을 통해 학점취득 가능
- 4) 영어 또는 한국어로 학위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정규대학교입니다

미국연방정부 교육부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USDS J-1 Visa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1.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전문가
2.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전공무관) 인턴십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십을 통해 경험을 쌓고 취업할 수 있다.

선교사에게 좋은 기회: 선교사 안식년에 J-1 비자를 받아 본교 세계연구소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J-1 VISA 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이희철교수 (hlee@midwest.edu)께 문의 바람.

2016 미 대선, 앞치락뒤치락 오리무중

(1면에서 계속)

지난 19일 문머스대 여론조사에서 전국 지지율은 힐러리 52%, 샌더스는 37%였다. 하지만 샌더스가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기선을 제압할 경우 힐러리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때까지 샌더스를 상대로 어려운 승부를 계속해야 한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테드 크루즈를 누르고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는 아이오와에서 인기가 많은 전 부통령 후보 새라 페일린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 공화당 소속 아이오와 주지사 테리 브랜스테드마저 재생에너지에 반대하는 크루즈를 낙선시키겠다고 선언, 천군만마를 얻었다. 코커스는 당원대회여서 주지사의 영향력이 크다.

트럼프는 전국적으로도 34%의 지지율로 2위 크루즈(20%)에 크게 앞서 있다. 하지만 아이오와 코커스와 함께 트럼프 열풍이 꺼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여전히 많다. 2004년 민주당 경선에서 아이오와, 뉴햄프셔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인기를 얻은 하워드 딘은 막상 투표가 시작되자 기성 정치인들에게 패했다.

트럼프가 7월 18-21일 공화당 전당대회 때까지 지지율을 유지하고 군소후보들이 완주할 경우 공화당 지도부가 '과반 득표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중재 전당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선 당 지도부가 원하는 정치인을 추대하기 위한 절차다. 트럼프는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몇 차례나 약속했지만, 막상 중재 전당대회가 현실화되면 당을 박차고 나가 무소속 출마를 할 수도 있다.

23일 힐러리가 휘청대고 공화당 기성 정치인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이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블룸버그는 힐러리가 샌더스 바람 탓에 월가 개혁이나 교육제도 개혁 등에서 왼쪽으로 이끌려가는 것에 몇 차례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만장자이고 월가와 친한 블룸버그는 공화당 성향이지만, 총기규제와 낙태 등 사회문제에서는 민주당에 가깝다. 이 때문에 양극단으로 치닫는 워싱턴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부동층을 흡수할 잠재력이 있다. 미국에서 무소속 후보가 승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블룸버그는 2007년에도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막판에 마음을 접었다. 블룸버그는 2월의 경선들과 3월 1일 '슈퍼화요일'의 11개주 경선 결과를 지켜본 뒤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아이오와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는 공화당 후보로 5명을 거론하면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크루즈



의원을 뽑았다. 이 신문은 아이오와 주에서 1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크루즈 의원이 올해 7월 클리블랜드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의 막후 조정을 거쳐 최종 후보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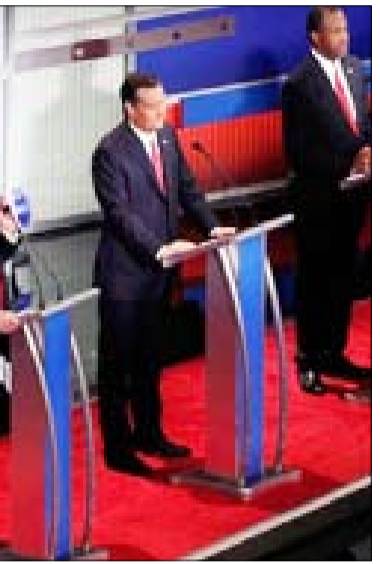
워싱턴포스트는 크루즈 의원에 대해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으나, 아이오와에서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트럼프 덕분에 공화당 일각에서 보수적이며 당에 재앙이 되지 않는 대안 후보로 떠올랐다"며 "선거자금도 경선 레이스를 마지막까지 지속할 정도로 두둑하다"고 덧붙였다.

2위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꼽혔다. 공화당 주류가

선호하지만, 초기 경합주 가운데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는 곳이 없는 점 때문에 크루즈 의원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의 최종 낙점 확률은 3위로 평가됐다. 아이오와를 크루즈 의원에게 내준 뒤, 곧이어 치러지는 뉴햄프셔 주(2월9일) 프라이머리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전략이지만, 아이오와 패배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투표 성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4위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로 평가됐고, 5위에는 한때 공화당 선두였던 쥘 부지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올랐다. 워싱턴포스트는 6위로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 7위로 기타 후보를 꼽았으나 이들의 최종 후보 낙점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가 열리는 아이오와 주 최대 일간지인 '디모인 레지스터(Des Moines Register)'지는, 공화당 후보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미 대선이 열리는 해 첫 당원대회인 아이오와 코커스를 1주일 앞두고 나온 이 선언이 두 후보의 지지도를 얼마나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디모인 레지스터는 23일 사실을 통해 "공화당은 기회와 낙관주의를 중시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 또한 바텐더와 호텔 청소원의 아들이 대

통령이 될 수 있는 정당이기도 하다"면서 "아메리칸 드림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루비오 의원은 공화당은 물론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 잠재력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의원의 부모는 쿠바계 이민으로 바텐더와 객실 청소원으로 일했다.

또한 2012년 대선은 공화당이 공화당원의 지지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면서, 여론조사 결과 무당파 층들은 신경외과의사 출신 벤 카슨 후보를 제외하고 루비오 의원에게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면서 루비오 의원 지지 이유를 밝혔다.

루비오 의원은 또한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크게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큰 복음주의 공동체를 겨냥한 새로운 30초 분량의 TV 광고(Faith: Marco Rubio for President)를 아이오와 복음주의적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내보내고 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우리가 도전이나 문제에 직면할 때 의심하기도 하며, 깊이 염려하고 근심하기 시작한다"면서, "하지만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나의 계획의 일부야. 네가 그것을 원하는 원치 않든 그것을 극복할 힘을 줄 거야'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마다, 성경적인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매우 강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무리크다 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믿음만 세우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으로, 보통 미국인들은 2016 대선 후보로 나선 양당 예비 후보들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퓨리서치의 결과다. 따라서 아이오와 코커스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누가 승리를 차지하는가"다. 민주/공화 양당의 기성 정치인들인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아웃사이더인지, 아니면 또 다시 복음주의적 유권자들이 크루즈나 루비오 후보를 선택할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

중미 쟁단들은 무자비한 살상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길거리에 뿌리며 촌락에서 도시로 세력을 넓혀간다. 모두 암시장에서 서방 중독자들에게 마약 특히 코카인을 팔아 얻는 수입 덕분이다. 동유럽 범죄조직들은 인신매매를 통해 여성들을 불법 매음굴에 팔아넘긴다. 극동의 노동착취 공장에서 어린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진 명품 의류 등의 짝퉁 제품들이 암시장에서 밀거래된다. 이 같은 암시장 활동 등은 지구 전체 인류의 밝히지 않은 희생과 고통을 초래한다.

2016 지구촌, IS보다 무서운 위협들과 맞서 있다!

(2면에서 계속) 암 위기

2012년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암 관련 사망자는 820만 명, 새로 암에 걸린 사람은 1400만 명에 달했다. 더욱이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전망이다. 암 연구계에서 각종 암의 치료와 예방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향후 20년 사이 새로 암에 걸리는 사람 수가 70% 증가

할 것으로 WHO는 예상한다. 암과 관련된 일반적인 위험으로 5가지를 꼽는다. 높은 체질량지수(BMI), 과일과 채소 섭취 부족, 운동 부족, 흡연과 과음이다. 비만과 마찬가지로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암은 지상 최대의 사망 원인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편이 모두에게 이롭다. 820만 명의 암 관련 사망자에 근거할 때 2014년 한 해 동안

이슬람국가(IS)에 희생된 사람 수의 1,350배에 달한다.

암시장

총기·마약·사람·석유·골동품 등 불법거래는 무엇이든 인류에 가장 큰 위협을 제기한다. 조직범죄와 테러집단들이 저지르는 대다수 폭력적인 살상 행위의 자금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IS는 시리아와 이라크 고대 유적지에서 약탈한 골동품과 석유의 밀거래에 의존해 테러자금을 조달한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목사와 스티그마(2)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목회자가 상처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는 건지 헤어지지 못하면 그 상처 바이러스가 교회를 잠식하고 교인들에게 전이된다는 것이다. 필자라고 상처가 없었는가? 중직자가 준 상처도 있고 철없는 교인이 준 상처도 있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목장의 희열을 안을 수 있고, 거기에 매몰되면 교회를 떠나거나 우울증 환자가 된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 부른다. 2011년 한 해 동안 우울증이 정신과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54만 명이었다고 한다 [한국: 편집자주]. 그리고 그 숫자는 해가 바뀔 때마다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울증 보균자는 노숙자들보다는 화이트칼라 쪽이 훨씬 많다고 한다.

충신교회 목회 35년 동안 말 못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필자의 처방은 '참자, 기다리자'였다. 35년 목회 기간 동안 단 한번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된 내용이나 사람을 활자로 새길 순 없다. 그러나 곧바로 죄송하다며 찾아온 당회원들에게 담임목사의 부덕과 경솔을 사과하고 사퇴를 수습했다.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단 한번도 누구를 탓하거나 책임과 결과를 떠넘기지 않고 '나 때문이다'라며 가파른 언덕을 넘곤 했다.

문제는 상처나 스트레스는 내면에 쌓일수록 독소가 된다는 데 있다. 그때마다 필자는 산을 찾고 강을 찾고 바다를 찾았다. 그리고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고 외쳐 불렀다. 속 깊이 쌓인 독을 토해냈고 주님의 손을 잡았다. 목정이 터지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새김질 했다. 필자는 타고난 체질이 금식형이 못된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장기간 금식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소리지르 기도하고 찬송하기 위해 잘 먹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아무개를 위해 기도했다.

물론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서 못하면 양들에게 부패한 꼴을 먹이게 되고, 그 꼴을 먹은 양들은 집단 전염병으로 고통 받게 된다. 양이 병들면 그 해독은 부패량이 되어 목자에게 되돌아온다. 병든 목자와 병든 양이 공존하는 목장은 생명력을 잃고 신음하는 절망의 골짜기가 되고 만다. 그래서 목자와 양을 위해 교회는 행복 목장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시

작금 한국교회 이곳저곳을 들여다보면 여기가 교회인가 아니면 전장인가 구분 짓기 어려운 곳들이 많다. 그렇게 된 데는 목사의 책임도 있고 교인들 책임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인이란 특화된 전문적인 사 람들을 말한다. 그들은 마치 싸우고 시비 걸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태어나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행세한다.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전투병들, 그들과 맞서 싸우는 목회자도 자랑스런 목자는 아니다.

필자의 소신 중 하나는 '울면 웃는다'이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징징대고 칭얼대고 공상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신 주님을 소리 높여 부르짖고 직고하는 기도 행위를 뜻한다. 필자는 아버지와 주님이리는 칭호를 즐겨 쓴다. 일찍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회복했고, 위기와 거친 고비마다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외쳐 부르고 손잡았던 탓으로 극복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아버지!"하고 부르짖어 힘의 솟는다. 주님을 목 터지게 부르짖어 길 이 보인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의 윌리엄 프레이 교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눈물과 함께 배출된다. 그 때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생리적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준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감정이 정화된다"고 했다. 하물며 아버지를 향한 눈물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명약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위기를 넘겼고 사선을 넘었다.

iamspark@hanmail.net

We are seeking a full time youth pastor

Olympia central Presbyterian church is seeking a full time pastor for growing Youth and English ministry with passion for preaching and worship leadership, teaching, and helping our members grow in their faith.

Qualifications:

1. Master of Divinity degree from an accredited seminary
2. Ordination (Not Required but Preferred)
3. Experience in EM
4. Passion for Christ
5. Bilingual in English and Korean (Not Required but Preferred)

Requirements:

1. Resume
2. Personal testimony and Philosophy of ministry
3. One sermon file

Position description:

Full-time position(Salary \$36,000-\$42,000/yr, plus health insurance)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Email: ocpc91@gmail.com

Contact: (360)456-1636 or, (360)789-8731



EM 풀타임 청소년 사역자

WA 서북부지역에 위치한 올림피아 중앙 장로교회에서 EM 풀타임 청소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사역 & 사례]

- 풀타임 (\$36,000-\$42,000/년, 의료보험)
- 주사역: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EM 청소년담당 사역

[자격]

- 개혁주의/ 복음주의 신학교 졸업하신 분(본 교회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
- 영어 사용에 불편이 없는 분(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사용 가능한 분)
- 영혼을 사랑하고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한 분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간증문과 목회 철학 및 비전
- 최근 영어 설교 한편

[제출할 곳/문의]

Email: ocpc91@gmail.com (서류접수는 e-mail 로만 받습니다.)

TEL. (360)456-1636 or, (360)789-8731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언더-스탠드(Under-stand)??

아버지와 4살 난 아들이 기차를 탔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창문 밖만 훑어 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아들은 기차 안에서 난장판을 피우고 있었습니...

있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왔는지 승객들에게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요. 용서해주세요. 사실 이 아이의 엄마가 암으로 죽었어...

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해는 영어로 'understand'(언더스탠드)입니다. 'understand'(언더스탠드)는 'under'(아래)와 'stand'(서 있다)의 합성어로 '아래에서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 눈높이를 낮추어야 그 사람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

좋아한다'(잠18:2, 현대인번역)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

몽글했고 섬김에 대하여 다시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봉사자는 어려운 가운데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짜거나 맵지 않게 음식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픈 사람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채로 상해서 버려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정성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좀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환자가 기력이 없어 병을 열 수 없어 못 먹은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작은 오해와 섭섭함은 저들의 사랑과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해(understand)의 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도 그 대상을 언더스탠드(understand)하지 못할 때에는 오해를 가져옵니다. 올해 남가주사랑의교회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섬기려면 먼저 대상을 언더스탠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어떻게 언더스탠드를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언더스탠드(understand)의 대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하늘보좌를 버리고 자발적으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못남을 아시면서도 절대 우월한 눈길로 우리를 내려다보지 않으시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저도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먼저 우리의 이웃을 언더스탠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려다보지 않고 그 입장에서 서서 이해하는 '언더스탠드맨'이 되면 좋겠습니다.

푸 / 른 / 초 / 장

호성기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



86세 되신 할아버지가 손자뻘 되는 경찰관 앞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매치기 하다 잡혀온 것입니다. 점잖게 생긴 노인사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손자 손녀와 다복하게 사는 가정의 어른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애면 경찰관의 질문에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20대 초반 때 시장에 심부를 갖았어요. 복잡한 시장에서 어떤 아줌마의 장바구니에 있는 지갑이 보이고 돈이 보여 그만 손이 가서 훔쳤는데 들켜지 않았어요. 그 20대 때부터 지금 80이 넘어서까지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눈물을 떨구는 할아버지의 회한 섞인 말을 들었습니다.

을 농담으로 여겼더라'(창19:4)고 하였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들지 않은 사람들은 눈앞에서 파멸이 일어나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습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오죽하면 베스트셀러 중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스티븐 코비)'이라는 책이 있었겠습니까? 최근에는 뉴욕타임스 기자인 찰스 두히그가 쓴 책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습관의 능력' 즉 power of habit입니다. 습관은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습관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평소와 다른 그대로, 습관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평소와 같이 습관대로 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내일 종말이 온다면 목사님은 오늘

어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4살 때부터 새벽기도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순교자의 집안에 장손으로 태어나 처음 멘토링 받은 것은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으로부터 brain wash가 될 정도로 4살 때부터 들은 말씀은 '나 너와 항상 같이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거라. 그러면 할아버지는 못 도와줘도 아버지는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이 세상을 떠났어도 예수님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밤은 굶어도 새벽기도는 굶지 말아라. 기도의 사람이 되거라.' 4살 때부터,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들었고 이제 조부모님도 아버님도 천국에 가셨지만 지금도 제 마음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수로 가져야 할 습관이 있다면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은 한 사람을 살

는 것은 큰 축복이겠으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방하고 미리 막기 원한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치료보다 앞선 것은 예방'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후진국들은 홍수가 나서 다 부서진 후에야 정신 차리고 복구합니다. 선진국은 홍수가 나도 부서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합니다. 'Prevention is far better than cure.' '치료보다 앞선 것은 예방입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소망 가운데 열리는 인생길과 사역의 길에서 다 깨지고 망하고 잘못되고 난후에 기도하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로 예방하십시오.

2.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여야 할 두 번째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위하여 기도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눅22:42).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 달라고 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들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현오한 목사님을 보면서 공부의 신은 어디서 오는가 관찰하였다. 그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궁뎅이'로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현 목사님은 한번 책상에 앉으면 공부에 끝장을 보셨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한번 앉으면 1시간 공부하고 그 후에 일어나서 1시간 돌아다니며 놀다가 또 와서 1시간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돌아다녀라.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지 말고 교수가 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라.' 저의 친구들 대개가 교수를 방향을 정하고 열광할 때 저는 기도하면서 복음전파자가 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복음전파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평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으십시오. 남이 세탁소 한디가 나도 해볼까? 신학교 졸업하였으니 할 일도 없고 목회나 해볼까? 100% 실패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후회 없는 주의 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목회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의 평생의 갈 길을 소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명의 성도가 미국 사립 고등학교 건물을 통째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지각없는 백인 청년 5, 6명이 매일 밤에 와서 교회당을 때려 부셨습니다. 왜 노란 사람들이 백인 지역에 들어왔냐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페인트로 건물 벽에 욕을 써 칠을 매일 밤 해대었습니다. 울며 기도하면 주님은 저들을 미워하지 말고 지역사회에 있는 가난한 미국인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니까 저들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길 이름을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지도를 바꾸어주는 힘을 주셨습니다. 미국인들이 볼 때 별것 아닌 노란 한국인이었지만 기도할 때 저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을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약한 자들이기에 교회에서 한 시간 떨어진 곳에 기도원을 구입하였을 때 백인 주민들이 100% 나와서 반대하였습니다. 기도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100% 단혀 버렸습니다. 우리 약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밖에 없었습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주님은 힘을 주셨습니다. 100%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다 모아놓고 제가 4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서부터 배운 기도를 간증하였습니다. 한국인 크리스천들이 역경속에서 어떻게 기도로 이겨왔는지 한국인 신앙인들의 기도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24살에 집을 떠나 37년을 외국에서 살아온 삶에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삶을 그냥 진술하게 간증하였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수도 없었고 기도 없이는 영여 정복도 되지 않았고 기도 없이는 목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간증을 그냥 간잔히 나누었습니다. 그때 미국 주민 중에 한 두 사람이 코를 훌쩍이며 듣더니 점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방방곡곡에서 고난 속에 눈물 속에 울린 기도로 오늘 같은 나라가 되었음을 말하였습니다. 백인 주민들이 저희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왜 기도가 우리 한인들에게 필요한가를 역사적으로 설명할 때 저의 성령님이 도우심을 느끼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00% 반대하던 백인 주민들이 100% 찬성하면서 이제 기도원을 돕는 사람들로 변하였습니다. 기도하면 주의 사자가 기도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힘과 소망과 능력을 주십니다. 일본의 카피라이터 나카이가요시는 '작심3일하지 말고 습관을 기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습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기도의 습관으로 역경도, 공부도, 환난도, 시험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의 습관으로 승리하라!' (눅 22:39-46)

무엇을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내일 종말이 온다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처럼 똑같이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평소와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종말을 맞을 수 있는 삶의 습관이 있습니까? 생각이 행동을 낳고 지속적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OJT, 즉 on the job training, 현장 실습을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가르쳐주셨습니다. 마지막 잡히시던 순간까지 왜 기도가 중요한지, 왜 기도가 습관처럼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삶이었고 삶이 기도였습니다. 나의 기도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프로 그램도 아니고 기도는 특별 이벤트도 아니고 기도는 습관입니다. 그냥 숨 쉬는 것 같은 매일 매순간의 습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통로' 즉, means of grace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수로 들려져야할 습관이 있다면 기도의 습관입니다. 저는 친가와 외가 양가에 순교자가 한분씩 있는 집안에 장손으로 태

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대학원에 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길레스피 총장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장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4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새벽기도를 배워서 오늘까지 그것이 습관이 되었는데요. 프린스턴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갔습니다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의 기능이 정지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방을 허락해 주세요.' 길레스피 총장님이 저를 몇 분간 쳐다보신 후에 인정한 미소를 띠면서 결혼한 학생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 기도실을 하나 허락하여주셨습니다. 프린스턴의 첫 시작부터 M.Div and Th.M 두 개의 석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저와 몇몇 학생들은 매일 새벽에 모여서 매일 새벽기도를 하면서 신학대학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린스턴에는 저의 주위에 교수를 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로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한 분 중에 장신대학원장을 지낸 현오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대학원에 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길레스피 총장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장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4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새벽기도를 배워서 오늘까지 그것이 습관이 되었는데요. 프린스턴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갔습니다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의 기능이 정지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방을 허락해 주세요.' 길레스피 총장님이 저를 몇 분간 쳐다보신 후에 인정한 미소를 띠면서 결혼한 학생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 기도실을 하나 허락하여주셨습니다. 프린스턴의 첫 시작부터 M.Div and Th.M 두 개의 석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저와 몇몇 학생들은 매일 새벽에 모여서 매일 새벽기도를 하면서 신학대학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린스턴에는 저의 주위에 교수를 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로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한 분 중에 장신대학원장을 지낸 현오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

1.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왜 승리하게 되는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밝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40절과 46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어야 기도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고 시험에 빠지면 '주여 살려주세요!'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잘못되고 나서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

다: -인간관계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관점이 충돌하는 것은 당연함을 인정한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각자의 과거의 문제를 현재의 관계 속에 투영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눈앞의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 자신의 옛 기억과 싸우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라. -갈등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갈등의 해결책이 아니다. -반대는 현안에만 국한시킨다. 상대의 과거 행적이나 태도를 보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갈등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는 행동이 된다. -사과하는 용기를 가진다. 상대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거나, 내가 옳더라도 양보할 때도 있다.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고통을 감내하며 성숙한 태도로 해결하라.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갈등 해결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3. 주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탄방울이 피처럼 되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동안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힘을 도왔습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저는 미국교회에서 미국인들을 위하여 사역하다가 21년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공양에 한 학생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 기도실을 하나 허락하여주셨습니다. 프린스턴의 첫 시작부터 M.Div and Th.M 두 개의 석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저와 몇몇 학생들은 매일 새벽에 모여서 매일 새벽기도를 하면서 신학대학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린스턴에는 저의 주위에 교수를 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로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한 분 중에 장신대학원장을 지낸 현오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

다: -인간관계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관점이 충돌하는 것은 당연함을 인정한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각자의 과거의 문제를 현재의 관계 속에 투영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눈앞의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 자신의 옛 기억과 싸우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라. -갈등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갈등의 해결책이 아니다. -반대는 현안에만 국한시킨다. 상대의 과거 행적이나 태도를 보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갈등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는 행동이 된다. -사과하는 용기를 가진다. 상대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거나, 내가 옳더라도 양보할 때도 있다.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고통을 감내하며 성숙한 태도로 해결하라.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갈등 해결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갈등 회피하지 말라!

<1면에서 계속> 성경은 많은 실례로 갈등에 처한 사람들과 이들이 갈등에 대처했던 방법들을 보여준다. 갈등해결에 실패했던 이들에게서나 성공했던 이

들 모두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된다. 아담과 하와를 갈등을 회피했던 전형적인 사람들이다.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던 이들의 반응은, 결국 부부관계에서

도 서로를 닦하는 반응으로까지 이어졌다. 아브라함과 롯도 갈등이 있었고, 야곱과 에서, 요셉과 형들, 사울과 다윗, 신약의 교회들은 모두 갈등이 있었다. 따라서 갈등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치부하여 쉬쉬하며 덮어두지 말아야 한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 태도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인간관계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관점이 충돌하는 것은 당연함을 인정한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각자의 과거의 문제를 현재의 관계 속에 투영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눈앞의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 자신의 옛 기억과 싸우는 것이

다: -인간관계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관점이 충돌하는 것은 당연함을 인정한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각자의 과거의 문제를 현재의 관계 속에 투영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눈앞의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 자신의 옛 기억과 싸우는 것이

-사과하는 용기를 가진다. 상대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거나, 내가 옳더라도 양보할 때도 있다.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고통을 감내하며 성숙한 태도로 해결하라.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갈등 해결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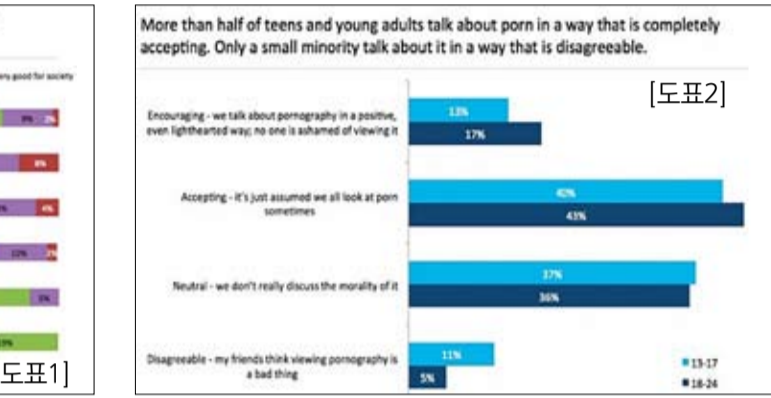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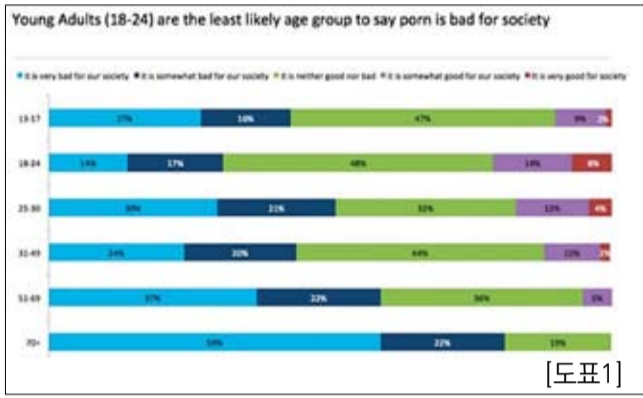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교회와 기독교가정, 교회사역자들에게까지 들어온 포르노 문화 (상)

지난 52년간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조시 맥도웰(Josh McDowell) 목사와 바나 그룹에서 3천명의 청소년들과 목사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포르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설문조사는 미국인의 포르노 사용에 대하여 그동안 나온 설문조사들에 비해서 가장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설문 조사였는데, 그 조사 결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설문조사를 정리해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의 청소년들은 한 때 "X-Generation" 이라고 불리웠던 세대에 비해 포르노를 보는 확률이 2배나 높아졌다고 한다. X-Gen.세대는 그들이 25-30세 청년들이었을 때, 사춘기 전에 포르노에 접하게 된 것이 13%였는데, 현재 25세-30세 청년

아래의 도표는 "포르노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느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로서 18-24세 청년 48%가 "포르노가 사회에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라고 답했을 뿐 아니라 같은 연령대 22%는 "포르노가 사회에 좋다, 매우 좋은 것이다"라고 답하므로, 포르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18-24



세 청년 비율은 총 70% 이상이라는 사실이다[도표1 참조]. 13-17세대의 대답 역시 크게 다

가 정상적인 것이며,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문조사에 답한 것이다.

결론1: 이러한 심각한 성적으로 비뚤어진 가치관은 어제, 오늘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는 현 공립교육 시스템 속에 자유분방하고 비도덕적인 성교육을 의무화 하는 오바마 정부의 정치적 권력 남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엄청난 자금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Planned Parenthood과 같은 낙태 대기업들이 만든 Naked Notion(번태적 성관계를 긍정적으로

13-17세 91%와 18-24세 96%가 "포르노는 정상적" 현 공립교육시스템 속 비도덕적 성교육 의무화가 원인

들은 27%가 사춘기 전부터 포르노를 보기 시작했다고 설문조사에서 대답했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포르노 보는 청소년 비율이 같은 나이 또래에서 2배가 됐다

조시 맥도웰 사역(Josh McDowell Ministry)과 바나(Barna) 설문조사에 의하면 적어도 50% 이상의 청년들은 자기가 원하거나 혹은 우연히 일주일에 적어도 1번쯤은 포르노에 접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청소년 중에서는 매일 포르노를 보는 학생이 8%, 매주는 21%, 한달에 한두 번 역시 21%라는 대답이 나왔다. 청년들 중에서는 16%가 매일, 32%는 매주, 23%는 한달에 한두번씩 포르노를 본다고 응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48%가 적극적으로 포르노를 매주 또는 더 자주 접근한다고 조사에 답했다.

르지 않다. 47%와 11%의 긍정적인 대답을 합치면 총 58% 이상의 13-17세 십대들이 포르노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31세에서 40대 후반과 51세-69세 중년 이상의 연령자들의 "포르노"에 대한 충격적인 대답이다.

이 연령대들은 지금 교육, 사회, 문화, 정치 안에서 다음세대들의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리더나 리더십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들의 연령인데 31-40대 후반의 총 56%가 포르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며, 51세에서 69세 중 36%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5%가 "좋다"라고 대답한 것을 합치면 51-69세의 총 40% 이상이 포르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31세-69세는 지금 리더의 위치에 있는 나이들이며, 손자 손녀들에

△포르노 보는 것을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말한다: 13-17세(십대)-13%, 18-24세(청년)-17%

△포르노는 사회/문화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어야 한다: 십대-40%, 청년-43%

△도덕에 대해서는 언급을 별로 하지 않는다: 십대 37%, 청년 36%

△포르노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과 반대 입장을 갖는다: 십대-11%, 청년-5%

결국 위의 조사결과를 볼 때 20명 중 1명의 청년과 10명 중 1명의 청소년만이 포르노를 보는 것이 "해롭다"라고 답한 것이 되고, 나머지는 포르노를 긍정적으로만 볼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적으로도 인정해야 한다는 매우 위험하고 그릇된 가치관에 대하여 우리 교회들과 학부모들은 확실한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

십대들에게 가르치는 동영상이 같은 교육들을 통해서 십대들을 세뇌한 결과가 지금의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자유분방하고 문란한 성교육의 실제는 Tvnex.org에 가면 볼 수 있음).

그런데 더 큰 이유 중 하나는 너무나 중요한 성교육을 학교와 국가에 맡기고, 교회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성경적 성교육, 성경적 결혼관, 가정관, 생명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이제는 학부모들과 교회들이 앞장서서 세상보다(공립학교, 정부, 친구, 문화 등등) 먼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시켜 "세상의 제자"들로 세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양육하여야 할 것이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어느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 집사입니다. 우리교회는 비록 모이는 집회 수는 비록 적어도 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고 수는 적지만 다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십일조와 헌물을 드림으로 교회는 자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다니는 교회를 더 사랑하는 길일까요? -LA 근교에서 권

A: 열심히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집사님의 교회는 비록 회집 수는 작지만 영적이고 실력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이니 자부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고 학교 다니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우습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겨, 학교가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데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고 자기교회를 좋아해야 합니다. 교회 사랑에 2가지 길을 소개합니다.

첫째, 교회의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고 아니고 Congregation(회중)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한사람 한사람이 교회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사랑은 성도끼리 사랑하고 사역자 사랑하는 것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학력이나 경력, 각자의 성격이나 살아온 배경, 경제수준 등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다른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철저히 나를 깨뜨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 교만한 나, 자신히 철저히 죽이고 부인하여야 합니다. 기드온의 군사는 자신이 가진 활아리를 깨뜨릴 때 기적적인 대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마리아의 육합은 깨뜨려질 때 향유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고 남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듯이 은혜를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 말씀의 사역자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성적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생이 교실에 들어와서는 자꾸 예수쟁이가 어찌고 하면서 은근히 교회와 기독교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이 싫어하면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수학이 싫어져서 흥미를 잃고 결국은 수학생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학생과 틀어지던 수학생의 강의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가 형성 안될 때는 목사의 설교가 안 들어오고 다 위선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신앙생활에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신앙생활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 영혼에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쌓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갈 6:6).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의 하나가 목회자와의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전 5:12-13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메μφ스 연합장로교회에서는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청빙요건

1.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한 목회자중 본 교단 소속이거나 가입 가능한 목사
2. 목회경험 5년 이상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

제출서류

1. 이력서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성장 과정, 신앙 여정 및 목회 경험에 대한 세부내용, 사진포함)
3. 목회 계획서(목회 비전 및 목회 방침 계획)
4. 설교 CD 또는 DVD 2개
5. 목사 안수증 및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6. 추천서 1통

서류 제출방법

1. 제출 마감: 2016년 2월 5일
2. 서류 제출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United Korean Presbyterian Church 4777 S. Germantown Rd. Memphis TN 38141
3. 문의: 청빙위원장(이춘욱 장로) 전화: 901-570-0815 Email: edlee112@hotmail.com

www.ukpcmemphis.org

메μφ스연합장로교회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

학사: 신학, 기독교교육.
석사: 다문화, 영어교육, 상담학, 교회음악, M.Div,
박사: D.Min, 다문화, 교회음악, 크리스찬리더십박사

- 1). 저렴한 학비, 통신, 온라인, 집중강의, 등을 통한 학점 취득
- 2). 미국 초교파적인 국제복음주의협회(IEA)로부터 목사안수 (남,여)와 선교사 임명 받을 수 있으며 IEA 회원이 될 수 있다.
- 3). 본교는 미국 미주리주정부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대학교이다.
- 4). 타대학 학점 최대한 인정 편입 가능.

Global Gateway University

www.goggu.us info@goggu.us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 교육국 BPPE CODE 94874 (e)(1)인준학교

총장 이동규 박사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el: (213)386-0300 (213)422-8916 / chongshinuts@gmail.com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매너
교회매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힐링캠프 기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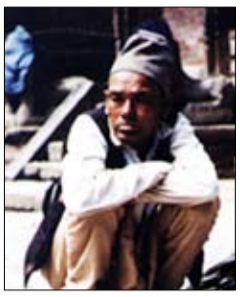
이선자 목사

쉽고 회복이 있는 기도 동산.
지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 주세요

Cell. (714)220-7660
3026 W. Ball Rd. Anaheim, CA 92804
jesussunja@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네팔의 네팔족(Nepalese)



주로 네팔 지역에 거주하는 네팔족은 동부 파하리 족(Pahari)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국가 공식언어인 네팔어를 사용한다. 또한 북부 인도인들과 비슷한 인종, 문화 그리고 언어를 사용한다. 그들의 종교적 관습은 인도의 상위 힌두 카스트제도를 모방해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네팔족들은 구름 지대

에 위치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으며, 긴 여정의 여행을 하므로 걷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성격은 활발하며 유머와 재치가 있으며, 자부심이 강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는 주로 세 그룹인 브라만(Brahmans: 성직자, 학자), 카하트리아스(Kahatriyas: 통치자나 군인), 아추트(Achut: 노동자나 노예들)로 나뉘어진다. 아추트는 주로 화장실 청소 등의 허드렛일을 하며, 대다수는 생계를 위해 구걸하기도 한다. 불가촉천민(Untouchables: 인도의 최하층 천민)으로써 그들은 힌두의 다른 계급에 의해서 불결한 것으로써 간

주되어지며 힌두의 계급에서 제외된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네팔인들은 농부로, 강가에 위치해 있는 작은 부락을 이루고 있다. 마을들은 농지를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는데, 가난한 가족들은 농토를 소유할 수가 없다. 중부 및 남부 네팔 지역의 토지는 여러 세대에 걸쳐 계단식으로 개간됐다. 벼는 몬순계절 동안 재배되며, 쌀, 옥수수, 수수, 밀은 여름과 겨울 동안 건조한 토지에서 재배된다. 또한 네팔인들은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채소밭을 가꾼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우유를 얻기 위해 소를 키우고, 고기를 얻기 위해서 바팔로와 염소를 키운다.

마을은 일반적으로 강이나 샘 근처에 자리 잡고 있고, 집은 좁은

길로 연결돼있다. 때로 그 길은 마을의 가장 커다란 나무로 이어져 있다. 이 나무는 마을사람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로 사용된다. 중요한 사원이나 수도원이 위치해있는 더 큰 마을도 있다.

가족은 일반적으로 양철이나 이엉지붕과 진흙 벽돌로 만들어진다. 가족의 아랫쪽 하반부는 붉은 진흙이 발라져 있고 상반부에는 흰색으로 칠해져 있다. 집은 일반적으로 2층 이상으로, 부엌과 거실은 2층에 위치해있어서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동물들로부터 나온 오염을 피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집에는 베틀 짜기 같은 자질구레한 일과 함께 가족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앞마당이 갖추어져 있다.

지주든 노예의 자식이든 네팔족 어린이들은 잘 양육되는 편이다. 아이가 2-3세가 될 때까지 모유를

먹이며, 아이들에게 첫살 음식과 첫머리 자르기와 같은 많은 통과 의례가 있다. 또한 소녀들은 사춘기 의식을 통과하며, 소녀들은 "신성한 실 의식(sacred thread ceremonies, 목에다 실을 묶어서 일생을 행복하게 지내기를 기원하는 불교 또는 힌두교의 의식)"으로 알려진 입문식을 통과한다. 8살쯤 되면 아이들은 가정의 허드렛일을 하기 시작한다. 소녀들은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물을 길으며 가족들을 먹인다. 또 소년들은 대개 가족들을 지키며 돌본다.

네팔 소녀들은 전통적으로 1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한다. 지금은 약간 늦어졌지만 성숙해지면 남편과 동거를 시작한다.

신앙

네팔은 왕을 힌두신, 즉 비슈누

(Vishnu:세계의 보호자)의 화신으로써 추앙하는 힌두왕국이다. 대부분 네팔인들이 힌두교인이지만 무슬림과 불교신자들도 많이 있다. 전통적인 애니미즘(비인간적인 존재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신앙을 갖고 있어서 지방신, 악마, 영혼을 인정한다. 그들은 또한 교차로나 강 주위에 악마와 귀신이 있다고 믿으며, 그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제물을 바친다.

필요로 하는 것들

13개의 선교단체가 지금 이 사 람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지만 선교의 진도는 더딘 편이다. 네팔에서 단지 1%의 네팔인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기도만이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다가서는 열쇠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터키 개신교회목회자 12명 테러 발생지역 방문

이슬람국가 터키에서 개신교 목회자들이 테러가 발생한 지역의 관청을 방문,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개신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터키에서 목회자들이 무슬림 공무원들을 만나 기도한 것은 터키 역사상 처음이다.



26일 중동의 기독교 위성방송 SAT-7에 따르면 지난 22일, 터키 목회자 12명은 최근 테러가 발생한 남동부 디야르바키르 주의 관청을 방문해 주지사 사무실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디야르바키르 주는 지난 14일 쿠르드반군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차량폭탄 공격을 받아 5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했다. 또 지난해 6월 총선 이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무장 세력에 의한 공격이 빈번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터키 목회자들이 평화를 위한 기도를 올린 것이다.

터키개신교회협의회 및 산 웹즈백 목사는 "목회자들이 주 관청을 찾은 이유는 기독교와 이슬람 간 평화로운 대화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우리는 터키를 사랑한다. 기도를 통해 정부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축복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AT-7 터키 지부 관계자도 "이와 같은 경우는 터키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목회자들의 담대한 방문으로 기독교와 이슬람 간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에서 개신교회는 아직까지 공인된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 최근엔 150개가 넘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가정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터키 정부는 지난해 1월 시리아정교회의 교회당 건축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면서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교회의 존재를 인정했다.

'오바마가 시아파 무슬림?...중동서 음모론 확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냥 무슬림이 아니라 시아파 무슬림이라는 음모론이 중동에서 또다시 들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10년 전 미국 정치 무대에 등장할 때 그가 비밀리에 이슬람을 믿고 있다는 루머가 돌았고 이후부터 끊임없이 이 루머는 수면 위에 떠오르고 했다. 심지어 2014년 행해진 여론조사에서 미국 공화당원 54%는 여전히 오바마 대통령이 무슬림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중동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반 무슬림이 아니며 시아파 무슬림이라는 음모론이 재생산돼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의 제재를 풀어주고 핵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이 음모론은 더 힘을 받기 시작했다.

두바이의 일반 안보 사령관인 다히 칼판 타미드 중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시아파 세력들이 미국과 이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도왔다고 주장했다. 타미드는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의 시아파 이슬람 성직자들을 곧 방문할 것이라고도 암시했다.

WP는 두바이의 전 경찰청장인 타미드가 신뢰성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120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가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 음모론은 수백 번이나 리트윗됐다고 전했다.

오바마가 시아파 무슬림이라는 음모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중동의 여러 인사가 언급했다. 지난해 전 이라크 의원인 타하 알 라히비는 오바마 대통령의 시아파 배경이 그를 이란과 협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리아의 한 유명작가는 TV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아파 케냐인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2008년 대선에서 이란 국영신문은 오바마가 시아파 무슬림이라는 기사를 실기도 했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때 이란 시아파 세력의 축하가 있었다고도 전해졌다. 이라크에 거주하는 한 무슬림은 "많은 사람이 백악관에 우리의 형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중간 이름인 후세인은 시아파 이슬람의 가장 존경받는 순교자의 이름이며 시아파 무슬림의 가장 흔한 이름이지만 무슬림이 아닌 사람 또는 수니파의 무슬림도 흔히 사용하는 이름이다. 또 오바마 친부의 고향인 케냐는 시아파보다 수니파가 훨씬 많이 있는 국가이며 재혼한 모친을 따라 지냈던 인도네시아 역시 수니파가 많은 지역이다.

오바마가 시아파 무슬림이라는 음모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타미드 중장을 비롯해 많은 아랍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여전히 시아파라고 믿고 있다. 반면 시아파 그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수니파 무슬림이며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WP는 전했다.

IS, 1400년 된 기독교 수도원도 파괴

이라크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수도원 건물이 위성 사진 판독 결과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인 이라크 제2도시 모술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점령되어 있어 이들의 소행으로 추측된다.



AP통신은 20일 디지털 위성사진업체인 디지털글로브에게서 제공받은 위성사진 판독 결과 이라크 모술에 위치한 성엘리아 수도원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약 1400년 된 이 수도원은 입구에 그리스어로 예수의 이름 처음 두 글자가 적혀 있는 등 역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왔다.

평방 약 250㎡에 달하는 이 수도원은 사진 판독 결과 불도저나 폭탄 등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회색 잔해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이 수도원은 590년 건축된 이래 1743년 이슬람 개종을 거부한 수도사들이 학살당했을 때와 2003년 이라크군의 전투로 벽이 무너졌을 때를 제외하면 크게 파괴된 적이 없었다.

성엘리아 수도원은 종교적 자유를 갈구하던 이라크 기독교인들과 전쟁의 긴장을 견뎌야 했던 미군들에게 안식처가 됐던 장소로, 미 육군 3사단의 마크 헨더슨 상병이 2010년 4월 3일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에도 올라왔다. 영상에는 성엘리아 수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과 고단함을 달래는 미군과 이라크인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한편 IS가 지금까지 파괴한 종교 유적은 교회와 무덤, 모스크 등 100여개에 이른다.

미 선교사 등 봉사자 7명, 부르키나파소 인질극 때 희생

지난 15일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유혈 인질극으로 사망한 희생자 가운데는 현지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던 7명의 봉사자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모두 서구권 출신으로 캐나다인 봉사자 6명과 미국인 선교사 1명 등이다. 당시 인질극으로 모두 30명이 사망했으며 사건 직후 알카에다 북아프리카지부(AQIM)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21일 크리스채너티투데이에 따르면 6명의 캐나다인들은 3주간의 휴가를 내고 현지를 찾았던 단기선교팀의 일원이었다. 희생자들은 4인 가족과 이들의 친구 2명이었다. 이브스 캐리어, 글래디스 챔버랜드 부부와 두 자녀, 그리고 친구들은 퀘벡 주의 한 교회 단체를 대표해 부르키나파소의 빈민촌을 방문, 고아원과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인질극이 벌어진 날은 선교팀 중 2명이 먼저 귀국함에 따라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나온 당일이었다.

글래디스 챔버랜드의 여동생은 "나는 아직도 이들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웃음과 사랑으로 도왔다"며 "단지 선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자신의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안

타까운 감정을 남겼다.

미국 선교사 마이클 리더링(사진)은 2011년부터 부인과 함께 선교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위기에 처한 현지 여성들을 도왔다. 리더링 선교사는 에볼라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사망한 현지인의 가족들을 돌보고 시신을 묻기 위해 무덤 파는 일도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리더링 선교사는 당일 호텔에서 지역교회 목사를 만나던 중이었다. 그는 자신의 두 딸 이외에도 부르키나파소에서 2명의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었다.

병원서 CCM 틀었다 의사 고소당해

한 치과병원 원장이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을 틀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고소당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 15일 미시간 주 레이크오론의 한 치과에서 일하는 네 명의 직원들이 티나 마살 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직원들은 소장에서 마살 원장이 병원서 CCM을 틀고 직원들에게 매일 기도 모임을 열면서 참여를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살 원장은 약 1년 전부터 병원서 CCM을 틀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마살 원장은 "기도 모임을 가진 것은 맞지만 직원들의 참여를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CCM을 틀는 것은 영혼의 위로와 안정을 위해서이며 CCM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는 것과 같다. 여러 환자들로부터 나의 음악 선택에 대해 칭찬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마살 원장의 변호를 맡은 자블론스키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마살 원장은 자신 소유의 사업장인 치과 병원서 종교음악을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 때문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그는 직원들에게 어떤 차별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재판은 오는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북한, 미 대학생 관광객 '반공화국 적대행위' 혐의 체포

북한은 22일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한 혐의로 미국인을 적발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해당 기관의 통보에 의하면 (체포된 인물은)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 학생 엄 비어 오트 프레데리크"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그가) 미국 정부의 목인, 조종 밑에 조선(북한)의 일심단결의 기초를 허물어버릴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하여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그러나 그가 어떤 '적대행위'를 했는지, 언제 체포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의 미국인 억류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 중인 커비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인의 안전은 국무부의 최고 관심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들며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 이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중국 시안(西安)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아이오니아 투어스'의 가레스 존슨은 체포된 인물이 21세의 대학생으로, 자사 고객으로 북한에 갔다가 지난 2일 체포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여행사는 체포된 학생의 가족에게 체포 사실을 알렸으며, 미국 영사 업무를 대행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도 연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여행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그가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서양인은 이 미국인 대학생 을 포함해 총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억류됐다고 보도된 2명은 모두 미국인이다.

앞서 평양에 지국을 두고 있는 CNN방송은 한국계 미국인 남성 한 명이 간첩 혐의로 북한에서 체포돼 감옥에 갇혀 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올해 62세의 귀화 미국인인 이 남성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김동철'이라고 소개했다.

담임목사 청빙 공고

본교회는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교회로서 목회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신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자 격

- 1)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분(M.Div)으로 본교단(KAPC)에 소속 또는 KAPC가입 조건을 가지신분.
- 2) 담임목사 5년 경력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분 또는 부목사 3년 - 5년 이내 목회경력이 있으신분.
- 3)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가능하신분.
- 4) 영주권자, 시민권을 소유하신분

제출서류

- 1) 이력서(최근 2개월 이내 사진 첨부) 1부.
- 2) 목사 및 사모 신앙고백서 (성장배경, 신앙경력, 가족사항등) 각 1부
- 3) 목회 비전(목회동기 및 목회철학,교회운영계획 등 포함) 1부
- 4) 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5) 가족 소개서 (사진 포함)1부
- 6) 목회 안수 증명서 1부
- 7) 설교 CD, 2회분

참고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2) 선임된 분에 한해서만 개별 통지합니다.
- 3) 서류마감: 2월 29일까지소인

제출처

Attn: 동문교회 청빙위원회
East Gat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213-483-6675 (단 전화사절)

동문교회



고난의 신학: 용기에 대한 묵상 (6)

이승현 박사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총장)



희망을 찾아서

나는 암 판정을 받은 후 투병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은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하였는데 그 제목을 "희망을 찾아서"라고 하였다. 다른 질병이나 고난도 마찬가지로 지겠지만 암과의 시간은 나에게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나의 삶에 몇 년이 더 남아있는지 모르고 언제 다시 암이 재발할지 몰랐기에 매일 매일 나는 알게 모르게 우울증 그리고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희망은 나에게 저절로 찾아오지 않았고 소망은 내 육체와 삶 속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나와 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9절)라는 말이 내가 그 때 경험하였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삶

자체가 기적이었고 소망의 햇빛이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소생케 하고 시들어 가는 영혼에 새로운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 때 체험하게 되었다.

다. "나는 내 구속자가 살아 있음을 아노라"(욘19:25)라는 욘의 절절한 고백은 그가 빠져들던 깊은 절망감을 알지 못하고는 이해할 수 없다. 그의 절망감은 자신이 의지했

이게 돼버린 것이다. 홀로 된 그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죽음뿐이었으리라. 그러나 죽음의 문 앞에서 섰을 때 욘은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분을 만나게 된다. 이분은 그를 조롱하는 가족, 친구와는 달리 욘의 중개자이며 대속자(redeemer, 고엘)라고 소개되었다. "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표면적인 지식이나 가벼운 친분관계가 아닌 인간의 깊은 내면까지도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욘이 이 구속자를 안다는 고백은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나 가족들을 초월하여 자신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내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을 새롭게 대면하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히브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속자(고엘)는 혈연기간 가족 중 가장 가까운 친척이다. 이스라엘인이 빈곤에 처해서 갖고 있는 재산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주위에 과부와 고아들,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었으며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해 주었다(29:12-16). 자기 가족, 친척뿐이 아닌 사회에서 소외된 많은 이들에게 대속자가 되어준 것이다. 그러나 욘이 고난에 처하게 되자 이제는 본인이 대속자를 필요하게 된다. 많은 이들을 위해 대속자의 삶은 살았지만 정작 욘에게 대속자가 되어 준 이는 과연 누구일까? 19장 25절과 26절에서 욘은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알고 자기 몸에 있는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외친다. 다시 말해서 아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대속자와 하나님은 평행관계이며 대속자와 하나님은 동일한 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대속자의 하나님은 21절과 22절에서 욘이 언급하고 있는 심판의 하나님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어떻게

고 자비는 영원이라는 뜻이다. 욘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온전히 담으신 대속자이심을 믿고 있다. 따라서 욘이 절망 가운데 발견한 대속자도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라는 신학적 해석도 가능하겠다. ITS 학생들 중 인도에서 온 수발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수발은 수업 중 우연히 교과서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그 그림 밑에는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적혀 있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읽고 그는 자기가 믿는 힌두교의 신들과 달리 죽으면 쉬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라고 믿게 되었다. 수발은 브라만(힌두교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상위 계층인 제사장들)이 대부분인 마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마을사람들은 그가 외국 종교로 개종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가족과 모든 관계를 끊었다. 이웃, 친척 중심인 대기속사회에서 이렇게 고립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을 말한다. 수발의 부모는 더 이상 이웃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수발과의 관계도 악화만 되었다. 이러한 수발에게 가족과 친척이 되어준 이들은 그가 다니게 된 성경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었다. 모든 이들에게서 버림받은 그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대속자가 되어준 것이다. (10면으로 계속)

가문의 대속자로 산 욘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대속자 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바쳐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다. 희망은 언제나 "불구하고"(in spite of, 헬라어로는 ὅτι ὅτι)라는 전치사를 전제로 한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험벗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경이 없다면 희망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바울이 말하는 영원한 소망의 존재도 인간의 역경이 결코 우리 사는 날 동안 끝나지 않음을 토대로 한 것일 것이

던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받음에서 온다. 하나님께 정의를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의 가족, 친구들, 친척들은 그에게 등을 돌린다. 심지어 그를 섬기던 종들마저도 욘을 비웃으며 조롱한다. 욘은 종들에게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처지가 돼버린다(19:16).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 즉 모두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이나 발을 팔았을 때 대속자가 이것을 다시 되찾도록 도와주었으며 또 루트 같이 남편을 잃은 과부를 아내삼아서 그 가문에 대를 잇도록 도와주는(보아스) 역할도 하였다. 다시 말해서 대속자는 가문의 구세주 역할을 한 것이다. 가부장적인 고대근동사회에서 부족장과 같은 지위를 가졌던 욘은 대속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누구보다

욕은 자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속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또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의 하나님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진노로 그의 얼굴을 잠깐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한다(54:8). 하나님의 심판은 잠깐이

아는 자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속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또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의 하나님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진노로 그의 얼굴을 잠깐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한다(54:8). 하나님의 심판은 잠깐이



아하 그렇구나!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19)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언합감교회 담임)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성경에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이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되자 실로에 있던 법궤를 전장으로 가져온다. 그러나 결국 이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만다. 그 후에 법궤가 돌아오긴 했지만 다시는 실로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왜냐

하면 블레셋이 실로 성전(성막)을 불태워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기까지 법궤는 여기저기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사울 왕도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 전사를 당하게 된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의 무대가 블레셋인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다.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제대로 이겨 본 적은 별로 없다.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도 블레셋만큼은 정복하지 못했다. 이들이 차지했던 곳은 지금의 가자 지구로서,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골칫덩어리이기도 하다.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에서 나온 단어이다.

블레셋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유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때문일 것이다. 골리앗이 다윗 아닌 블레셋 장군 아닌가? 2012년에 고고학자들이 가드를 발굴했다. 가드는 블레셋이 예जे해 근처에서 활동하다가 지중해를 건너온 해양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와 비슷한 시기(주전 12세기)에 가나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와 몇 세기를 살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특이한 이름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는다. 골리앗은 셈족식 이름이 아니고 인도 유럽식 이름이라고 한다.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서 골리앗과 비슷한 이름이 새겨진 항아리 조

각이 발굴되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후대에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지어낸 이름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름이었음을 말해 준다.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대 금기시 된 돼지고기를 먹었다. 그들이 이웃 민족들과 동화되지 않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2012년의 발굴을 통해 그들이 개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다윗이 몰래 하나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자,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삼상17:43). 얼마든지 개만도 못한(?) 다른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골리앗은 개를 비유로 들었다. 그것은 골리

앗이 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골리앗의 말은, 개를 잡으려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는 뜻이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개를 죽일 때 몽둥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는 단지 하나의 문학적 표현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관습을 반영하는 말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몽둥이로 개를 잡아서 먹었다(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끔찍한 관습이 있었다). 골리앗도 개고기를 즐겨 먹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10면으로 계속)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6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7-11(3월 7 -11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14-18 (3월 14-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Feb 1-5(2월 1-5일)
DI 8500 Discerning God's Will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homas Stal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11-Mar 4 (1월 11일-3월 4일)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 Seoul, Korea

Feb 15-19(2월 15- 19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현대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리더십 코멘터리 (9)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유익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

인생은 나그네 길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Even if I knew that tomorrow the world would go to pieces, I would still plant my apple tree)”는 철학을 논하던 스피노자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얌따 철학자’였다. 46세 폐병으로 죽을 때까지 집을 떠나 홀로 ‘하숙생’과 ‘나그네’로 생을 보냈다. 그는 세상의 어떤 비난과 찬사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삶을 산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헤겔은 “철학자가 되기 위

단게 된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인생은 한 순간과 같다는 이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꿈과 같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과 같다.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기억나지 않을 때도 많다. 어느 날 불현 듯 우리는 죽음을 지나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살았던 인생을 보면 인생은 마치 꿈과 같은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 풍요할 때

바이블은 인생이 한 순간과 같고, 꿈과 같고, 풀과 같고 삶에 지친 리더에게 충고한다. 또한 성경은 인생의 그 짧은 기간도 수고와 고통, 슬픔과 한으로 가득 찬 세월들이라고 말한다.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하늘로 쏘아진 화살처럼 빨라 아이는 어느덧 자라서 성인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을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 지혜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한다. 그 지혜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에 이 땅에 보낸 인생이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언제든 우리의 생명을 거기서 끝내고 만다. 이 깨달음은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며, 자녀들도 하나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 인생을 탕진하여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한다.

성경은 또한 세월을 아껴 사용하라고 알려준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시간은 낭비하면 없어진다. 어떤 리더는 짧은 시간을 살아도 깨달음을

인생은 단칸방 하숙집에 잠시 머물다가 한 순간에 떠나는 것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임을 아는 지혜로, 복음 위한 삶 살도록

해서 먼저 스피노자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도 TV가 아주 귀했던 1964년, 미스코리아 출신의 애인을 구하려다 화상을 입고 버림받은 남자 주인공의 애뜻한 사랑을 그린 ‘하숙생’이란 드라마가 있었다. 사람들은 비운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을 졸여야 했다. 그럴 때마다 허스키한 저음의 음성이 나지막이 깔렸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40대 이상의 팬들은 물론 30대의 젊은 층도 ‘하숙생’을 부른 가수 최희준을 아는 사람이 많다. 전무후무하게 서울 대법대를 나온 가수이자 전 국회의원, 그리고 학사 출신 가수 1호로도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인생이란 수영장 딸린 멋진 하우스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숙생과 같이 단지 단칸방 하숙집에 잠시 머물다가 정처 없이 떠나는 것이다.

인생은 한 순간과 같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탄생할 때 보면 울음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태어난다. 마지막 임종 장면의 모습도 마지막 호흡 한 번으로 순식간에 죽는다. 탄생(Birth)과 죽음(Death) 사이에 위치한 인생(Life)이라는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극히 짧은 순간이다. 나의 삶의 터전을 나의 인생 후배들이 갑자기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는 순식간에 삶의 자리에서 물러나 은퇴하고 죽음을 통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ironical)하게도 우리는 인생이 순식간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음 직전에야 그 진리를 비로소 깨

가 있고 노숙자 신세처럼 빈곤할 때가 있다. 피서지에서처럼 평안할 때가 있고 빗쟁이에 쫓기듯 근심, 걱정할 때가 있다. 사랑하는 이가 죽어 슬플 때가 있고 로또에 당첨되어 즐거운 때가 있다. 죽도록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다. 죽고 싶은 때가 있고 살고 싶은 때가 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로 가면 이 모든 인생 경험은 모두 꿈과 같은 것이다.

잠시 인생길을 멈추고 차 한잔을 마시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라. 지나온 인생길은 마치 꿈과 같다. 인생은 꿈과 같다는 성경의 말씀이 언제나 진리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인생은 꿈과 같다는 이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은 이른 아침에 찬란한 햇빛을 받으며 영롱한 이슬을 머금고 파릇하게 돋아나는 풀이지만 저녁이 되면 말라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다. 풀은 피고 자라고 진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잠깐 밀려오다가 거품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자. 한 가정의 기쁨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 인생을 배운다. 삶의 터전이 될 직장을 얻고 모든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룬다. 정년 은퇴를 하고 몸이 점점 시들어 가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한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운명이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인생은 풀과 같다는 이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Leadership Principle 1: 지혜의 마음을 얻으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데 비해 어떤 리더는 오래 살아도 후회와 두려움 밖에 남기지 못한다.

Leadership Principle 2: 인생의 C를 찾아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탄생 B(Birth)와 죽음 D(Death) 사이에 있는 C를 찾아야 한다. 우리 인생에 활력소인 Coffee와 Vitamin C가 있듯이 영적인 삶과 영원한 삶에 꼭 필요한 것은 CHRIST(예수 그리스도)이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의 인생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동기로 모든 것을 행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언제나 불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이기 때문이다.

Leadership Principle 3: 인생의 남은 날을 세어보라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인생의 목표 없이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각각 살날들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 정해진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또 어떤 사람은 30년이다. 리더여, 무늬만 리더인, 형식만 갖춘 지도자가 되지 말고 하루하루 인생의 남은 날을 지혜롭게 세어보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유익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리더로서의 인생을 살기를 권면한다.

sondongwon@g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10분 해피타임의 기적

부모로서 자녀에게 꼭 해 주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돈을 벌며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려 노력만큼이나 절실한 사명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나서서 자녀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단 몇 분이라도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해 열리는 좋은나무성품학교의 세미나에서 일어난 오래된 기억입니다. ‘좋은성품 자녀 세우기’ 세미나를 한참 진행 중에 한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강의를 멈추고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었지만 내 아이에게는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퇴근하면 밤 11시예요. 들어가면 아이는 자고 있고요 아침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하고...”

그때 그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공감 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현실이구나!” 하는 절망감이 갑자기 제 안에 파고들었지요. 이렇게 많은 부모들이 시간이 없어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가지 못한다고 한탄합니다. 맞벌이로 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어 자녀와 무엇을 함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빠로서 자녀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긴 해야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자신은 없고, 함께 놀아주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망설이게 되는 이 시대의 바쁜 아버지들에게 위로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엄마로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중한 양육시간을 갖고 싶은 욕심이 많은데 막상 아이들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머니들에게 격려의 소식을 드립니다. “10분 해피타임의 기적을 잡아보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10분이면 자녀의 성품이 디자인됩니다. 하루 10분이면 가정의 화목이 당신의 손안에 쥐어집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꼭 해주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돈을 벌며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만큼이나 절실한 사명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나서서 자녀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세상사는 힘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가르치는 사람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아닙니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우리아이 부족한 실력을 채워주는 그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바로 가정에서 매일 단 몇 초, 몇 분이라도 마주치는 부모님들이십니다.


짧은 시간, 단 10분이라도 우리는 자녀에게 눈을 맞추고 우리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아주 진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한 목소리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소통케 하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행복하고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럼 10분 해피타임의 기적,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 보통은 저녁 식사 후 하루를 마감하면서 온 식구가 둘러 앉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2. 집중적으로 성품교육을 실시합니다.

새뮤얼 스마일즈(Samuel Smiles)는 세기의 명작이 된 자신의 저서 ‘인격론’에서 ‘인격이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성품교육을 한다는 것은 자녀에게 미래의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많으시지만 10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지혜로움을 활용해서 ‘좋은성품의 자녀 기르기’에만 집중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부모님들을 위해 좋은나무성품학교의 성품정의를 나누어 봅니다. 아래의 12가지 주제의 성품 정의를 자녀들에게 매일 짧게 반복해 보세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주는 것 △근거정적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10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www.rptse.com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은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6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부	선교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6년 1월 29일(금) 오후6시
- 3 입학 시험 : 2016년 1월 30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강 부흥회 : 2016년 2월 1일(월) - 3일(수) 저녁 8시
-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목회서신

불가능은 없습니다!



나성균 목사 (살롯장교회)

“죽거나, 멋지게 살거나”는 세계 유일의 발가락 피아니스트인 중국 류웨이가 쓴 책의 제목이다. 류웨이는 1987년 10월 7일, 중국 북경에서 태어났다. 10살 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는 사고를 겪게 된다. 친구들과 숭바꼭질을 하던 중, 10만 볼트의 고압 전류에 감전돼 두 팔을 잃는다. 1만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겨우 살아난 류웨이는 어린 나이에도 좌절하지

않았다. 피나는 연습 끝에 2개월 만에 발가락으로 밥을 먹고 6개월도 안 돼, 글씨를 썼다. 12살 때부터 열심히 수업을 배워, 15살이 되던 2002년에는 전국장애인 수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였다. 그 후 2008년 북경 장애인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하던 중, 또다시 불행이 찾아왔다. 올림픽을 2년 앞둔 2006년에 원인

모를 악성 흉반이 온몸에 퍼져 수영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좌절할만한 상황임에도 그는 수영 대신 또 다른 도전을하기로 결심했다. 평소 관심이 많던 피아노에 눈을 돌려 집 근처 음악학교를 찾아가 입학상담을 하게 된다. 그때 상담하던 사람은 류웨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말에 이렇게 대답한다. “네가 피아노를 배울 수 있다면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런 말에도 실망하지 않고 더욱 피아노를 배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류웨이는 그날부터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 하루 7시간씩 무섭도록 피아노에 매달렸다. 1년이 지난 후 발가락으로 ‘꿈속의 결혼식’(Wedding in the Dream)을 연주하게 되었고, 2010년 8월 중국 최대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차이나 갓 탤런트’에서 멋진 발가락 연주를 통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면서, 방송을 지켜본 많은 중국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선사하였다.

그는 고난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2013년에 “죽거나, 멋지게 살거나”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그 제목은 그가 늘 말했던 것이다. “인생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죽거나, 멋지게 살거나.” 2012년 11월 국내 방송에도 출연했던 그는, 당시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의 눈이 왜 2개인지 아느냐? 한쪽 눈으로는 기쁨과 행복을 보고 다른 눈으로는 슬픔과 불행을 보는데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볼 것인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나는 기쁨과 행복을 선택했다. 긍정의 힘으로, 나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이루어냈다.” 또 그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의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운명의 길을 따라 어둠으로 가게 될 것이다. 비록 일어나긴 했지만 극복해야겠다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순풍만 겪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역풍의 때가 반드시 있다. 그것도 절망적일 정도로 거센 대풍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망하여, 인생을 방황하거나 포기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

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태산 같은 시련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거센 풍랑과 맞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대풍이 문제될 게 없다.

이 세상에는 태산 같은 시련을 뚫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작은 시련에도 굴복해 패인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후자가 훨씬 많다. 류웨이를 보더라도 불행한 인생으로 사느냐, 멋진 인생으로 사느냐는 삶의 자세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헤쳐 나갈 수 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revskna@gmail.com

KWMC, 30년 만에 남가주에서 개최 제 8차 대회, 6월 6-10일 APU, 등록비 3백불

기독교한인세계선교사협의회(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KWMC,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가 주관하는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오는 6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 웰레스 박사)에서 열린다. KWMC는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1월 26일 오전 10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고 대회 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대회 실행위원장 이상진 장로는 “지난 88년 제1차 선교대회를 갖고 지난 2012년까지 시카고지역 위튼 칼리지에서 대회를 가져왔다”며, “시카고지역에서 대회를 열게 된 것은 당시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의 미국 입국 시 비자발급이 용이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빌리그레함 목사가 선교대회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줬다. 그래서 빌리그레함 센터가 위치한 위튼 칼리지에서 지금까지 대회를 열어왔다”고 설명했다.

제8차 KWMC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는 “지난 30년 동안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열린 한인세계선교대회가 남가주에서 8차 대회로 열리게 된 것은 남가주지역의 큰 축복이다”라고 운을 뚫 후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가운데 한인들이 가장 밀집돼 사는 곳이 이곳 남가주다. 반면 초교파로 모이는 대규모 선교대회는 처음 열리게 됐다. 그동안 선교대회를 통해 많은 선교헌신자들이 배출되었다”며,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선교사자녀(MK) 등을 위한



제8차 KWMC 대회가 오는 6월 아주사퍼시픽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선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물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된 대회”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회는 또한 “이번 8차 대회는 매우 중요한 대회가 될 것이다. 기독교 선교사역이 점점 열기가 식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교단이 재정적자로 인해 선교지원이 축소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무슬림의 공격적인 선교와 ISIS의 돌발사태가 선교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8차 대회를 통해 남가주 교회가 선교에 다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KWMC 대회는 대회이전에 한인세계선교사대회(KWPF)와 제3차 MK(선교사자녀)대회가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며 청소년선교대회와 어린이선교대회가 3일부터 10일까지 같이 열리게 된다. 대회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남가주교계

가 선교적 미래적 교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6월 5일은 ‘남가주지역 선교주일’로 정하고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1000여명의 선교사들이 강단에서 선교 보고를 통한 교인들에게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며 선교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대회에 참석하는 자 숙박비는 3월 31일까지 등록하면 300달러(일반), 대학생/청년(18-25세) 200달러, 청소년(만13-17세) 150달러, 초등학생(7-12세) 100달러, 아동(3-6세) 50달러이며,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등록하면 모두 25달러씩 추가된다. 또 5월 16일 이후는 50달러씩 등록비가 추가된다.

한편 선교사들은 150달러, 선교사자녀는 11-22세까지 100달러, 3-10세까지 50달러다. 자세한 문의는 (516)277-2081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OC 교협 주최 oc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지역사회 복음화, 사회봉사 집중”

OC교협, 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승기 목사)가 주최한 ‘2016 오렌지카운티 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가 23일 오전 7시30분 로스코요테 컨트리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민승기 회장은 환영의 말씀을 통해 “OC교협은 ‘더욱 겸손히 섬기겠습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2016년 한해 동안 열심히 섬기고자 한다”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 올 한해 지역사회 복음화와 전도와 사회봉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교협은 힘차게 달려가겠다. 모두가 하나가 돼 미국과 OC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후우 목사(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신현철 목사(부회장)가 기도, 윤우경 집사

(OC평신도연합회장/교협부회장)가 성경봉독 했으며 조이폴 미션 코러스가 특송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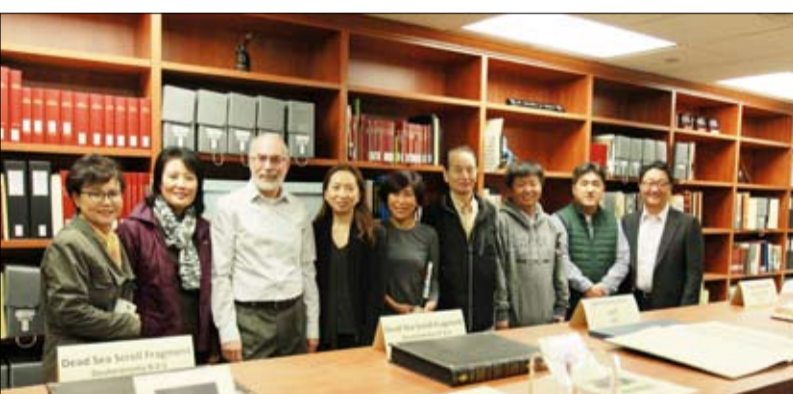
이어 한기홍 목사(경회회장)가 ‘우리를 보라’(행3:1-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합심기도는 조영수 목사(부회장)가 미국과 한국의 영적 회복과 부흥, 이태중 목사(부회장)가 ‘OC와 지역 기관단체의 발전’의 제목으로 기도를 인도했다.

민경엽 목사(교협이사장)의 축도로 마친 1부 예배에 이어 열린 2부 축하행사는 윤덕근 목사(부회장) 사회로 시작, 김가능 회장(OC한인회), 권석대 회장(OC&SD평동), 임덕순 장로(미주복음방송 사장)가 축사를 전했다. 이준실 전도사와 OC교협중앙당이 축가를 불렀다.

이어 민승기 목사가 교협임원소개를 하고, 박용인 목사(교협서기)가 교협 행사소개를 했다.

3부는 신현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OC기관 및 단체를 소개하는 시간과 조찬의 시간을 가진 후 박승환 목사(OC원로목사회회장)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APU한인동문회 주최 사해사본-고고학 세미나가 본교 웨스트캠퍼스 도서관 Ahmanson information Center에서 열렸다

APU, 콤란 네 번째 동굴의 5점 소장

APU한인동문회, 사해사본 고고학 세미나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APU 회장 최장식 목사)는 사해사본-고고학 세미나를 25일 오전 10시 본교 웨스트캠퍼스 도서관(Ahmanson Information Center)에서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케네스 오토 교수와 박성민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오토 교수는 “사해사본은 서기 1947년 현재 갈릴리 북동쪽 끝 서쪽언덕에 위치한 동굴에서 발견됐다. 최초 발견 후 10년간 11개의 동굴에서 900개의 사본이 발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APU에 소장된 사본은 총 5점으로 신명기 8장과 27장, 다니엘서 1점과 레위기 1점, 그리고 어느 책에서 나오는 건지 확실하지 않은 자료 1점이 있다. APU가 소장한 사본은 콤란지역의 4번째 동굴에서 나온 것”이라고 언급하며, 최초의 인쇄된 성경인 구텐베르그 성경과 1611년 출판된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토라에 대해 설명했다.

박성민 교수는 “신약안본은 AD397년에 완성됐다. 반면 구약은 1008년에 완성됐다”고 말하며 “구

약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은 레닌그라드코덱스로, 이는 제2러시아가 소장하고 있던 것”이라 말했다.

박 교수는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땐 목욕재계를 했다는 설이 있지만 실제로는 손을 씻고 썼다. 손을 씻는 것은 마음을 씻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1611년 발간된 킹제임스 성경은 룯기 3장 15절에 룯과 보아스가 하룻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히브리어 표현의 모호함으로 성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두 가지(He went to the city, She went to the city)로 번역됐다. 그래서 그가 갔다는 버전을 그레이트 히 바이블(Great ‘He’ Bible), 그녀가 갔다는 버전을 그레이트 쉬 바이블(Great ‘She’ Bible)이라 부른다”고 언급하며 “사해사본과 킹제임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100% 완전한 말씀을 주셨지만 인간은 아무리 성인이자 할지라도 0.1% 이상의 죄성이 있기에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나님말씀은 완전하나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성경번역의 오류가 존재한다. 하지만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이은수 목사, 제자회 한인총회 총회장 추대

10일 공동의회서 90% 지지 얻어

지난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올랜도에서 열린 크리스천교회(제자회) 한인총회 제 12회 정기총회에서 이은수 목사(뉴욕 근샘교회 담임·사진)가 2년 임기 총회장으로 추대됐다.

동 총회가 소속된 크리스천교회(제자회)(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은 북미 4천5백여 교회 1백만여 성도가 속한 미국주류교단으로 한인총회에는 120여개의 한인교회들이 주로 미중부와 서부에 위치해 있다.

14년 전 크리스천교회(제자회) 교단에 가입한 이은수 목사는 “우리 교단의 슬로건은 ‘본질에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을 사랑으로’이다. 한인교회 모든 목사가 하나가 되고, 모일 때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며 감동 있는 한인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취

임소감을 밝혔다.

한인교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크리스천교회(제자회) 교단 한인총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에서 자생한 북미주 개신교단으로 미국 이민 초기,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이민 온 장로교 목사들에 의해 교회개혁과 일치, 말씀과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가치아래 시작된 교단이며, 장로교 감리교 등과 함께 미국 개신교 주류교단에 속한 전통의 교단이다. 미국에서 최초의 목사출신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 장로였던 린든 존슨, 그리고 가장 최근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등 3명의 대통령이 이 교단 출신이었다. 신학적으로는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다. 세계적으로 복음전파와 사회정의 실현을 잘 결합한 건강한 교단으로 그 명성이 알려져 있다”라고 교단을 소개했다.



ITS위로의 밤이 선한청지기교회에서 열렸다

“지도자 세우기 후원도 선교”

ITS 위로의 밤...선한청지기교회서 준비

ITS(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총장 이순형 박사) 위로의 밤이 23일 오후 5시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에서 열렸다. 송병주 목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ITS 위로의 밤은 프레쿠마 다마자 박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또한으로 이어졌다.

이어 바리톤 채홍석, 소프라노 강지희, 유나보이스의 특송과 선한청지기교회 워십댄스팀이 워십댄

스 공연이 있었다. 또한 본교 재학생 중 중국, 말라위 등에서 유학 온 학생들의 간증과 특별공연, 그리고 이순형 총장의 격려사 시간이 있었다.

이순형 총장은 “선한청지기교회에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고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랑만큼 선교에 큰 힘을 준다. 학생들이 받은 사랑이 사역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말했다.

송병주 목사는 “선교는 멀리 가는 것만은 아니다. 이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잘 돕는 것, 그리고 비록 해외현지에 가지 못하더라도 그곳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지도자를 세우나가는 취지로 위로의 밤을 열었다”며, “거창한 것을 계획하기보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게 됐으며 함께하신 분들에게 기쁨을 주게 돼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의 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제 26회 총동문회(회장 허윤준 목사)가 주최하는 제 10회 총동문회의 밤이 2월 8일(월) 저녁 7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린다. 회비는 개인 30달러, 부부동반 50달러다.

▲문의: (917)733-7387, 386-8852

2016년 시카고 주빌리기도회 일정

시카고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지난 25일 빌립보교회에서 첫 기도회를 시작으로 2106년 일정을 발표했다. 시간은 오후 8시이며 △빌립보교회: 2월 29일, 3월 28일 △한사랑장로교회: 4월 25일, 5월 30일, 6월 27일 △새누리주님의교회: 7월 25일, 8월 29일, 9월 26일 △시카고한인교회: 10월 31일, 11월 28일, 12월 26일. 동 기도회는 통일북한선교(NIM 대표 임현석 목사)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문의: handsomelim@hanmail.net

'지성소 예배' 찬양집회

'지성소 예배' 찬양집회를 인도하는 유태용 목사가 이달 30일과 31일, 필라델피아 이여리안교회(담임 이상목 목사)에서 집회를 갖는다. 토요일은 오후 7시는 찬양예배, 주일 오전 10시30분은 주일 낮예배, 오후 1시30분에는 지성소 예배로 진행된다.

▲문의: (646) 258-4161, (814)833-1430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 세미나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 세미나'가 2월 6일, 13일, 20일 열린다. 등록비는 200달러. 청소년들이 자기관리와 인간관계 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문의: (201)242-4422

담임목사 청빙

뉴욕장로교회가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하며 이민 1세와 2세를 위한 신앙교육과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에 비전을 가진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개혁주의신학과 보수장로교(합동) 신학대학원(M.Div.) 졸업, 목사안수 후 목회경력 10년 정도, 한국어 영어 목회 가능한 분으로, 서류는 한영 이력서(사진 첨부), 신앙고백서와 자기소개서, 목회비전서, 추천서 2인 이상이 필요하다. 서류심사 후 추가 자료(학위증명서, 안수증명서, 설교자료 등) 요청을 개별 통지한다. 마감은 2016년 2월 15일.

▲제출처: NYPCVISION@GMAIL.COM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 1월 정기예배가 지난 21일 오전 10시30분 퀸즈장로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렸다.

2016년 들어 처음으로 모인 월례회에서는 2016년 사업계획이 소개됐다. 1)아동결연 코드디부아르 및 남미국가들 2)콜롬비아 단기선교: 8월 중순, 모기장, 물탱크 사역 및 결연아동 방문 3)후원자의 밤: 11월 마지막 주일 저녁.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권캐더린 목사 사회로 기도 박진하 목사, 특송 안경순 목사, 설교 박마이클 목사, 합심기도, 축도 김승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마이클 목사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사43:18-2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21세기 지구촌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아대책은 신앙과 삶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사역의 밸런스를 맞춘다”며, “가장 좋은 투자는 사람에게 대한 투자로 가난한 자에게 투자하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으며 병을

고쳐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새 일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16년,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날 합심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및 회원들을 위하여 △결연아동들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콜롬비아 김해정 선교사, 페루 김중원 최은실 선교사, 코드디부아르 김형구 이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회의를 시작하며 전희수 목사는 “하나님께서 지난해 계획한 것을 모두 이뤄주셨는데 올해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입을 벌리고 더 많은 비전을 갖고 영혼구원 사역을 감당하자”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미동부기아대책기구는 1월 신규 아동후원이 9명 늘어, 현재 해외 163명과 북한 6명 등 총 169명을 후원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폭설 이긴 신년감사...은혜 만발

뉴저지교협 신년감사에배 및 하례만찬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의철 목사)가 미 동부지역을 강타한 폭설 속에서도 지난 24일 2016년 신년감사에배 및 하례만찬을 개최했다.

오후 5시 한소망교회(담임 김귀안 목사)에서 열린 이날 회장 이의철 목사는 “새해를 맞이한 현재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적 어려움뿐 아니라 교회 안에 만연된 세속화, 인본주의, 이기주의, 혼란주의, 율리성 상실 등으로 진리가 혼탁해 있다”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고 우리부터 세속을 벗어 새 출발하자. 남은 회기 동안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역복음화를 이루어가자”고 말하고 이를 위해 “오늘 헌금과 후원금 1만 달러를 모아 어려운 이웃과 단체들을 후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안명훈 목사의 인도로 엘리트크리스천밴드의 찬양 후 시



뉴저지교협 신년감사에배 및 하례만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작대 기도 윤석래 장로, 성경봉독 박정희 목사, 찬양 뉴저지장로성가단, 설교 김정문 목사, 봉헌기도 김진수 장로, 헌금송 주정배, 김지은 집사, 특별기도 인도 최준호 목사, 축도 김귀안 목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문 목사는 “이름 행하라”(눅 10:25-29)는 제목의 말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본문을 통해 잘 안다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지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마음이 긍휼이 있느냐, 자비가 있느냐’ 물으셨을 때 분명히 ‘예’라고 답할 수 있기를 원한다. 긍휼

의 마음이 가는 곳이 우리의 이웃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금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기도는 최준호 목사 인도로 △미국과 조국을 위해 △교회와 한

인사회를 위해 함심으로 기도했다.

2부는 흥인석 목사 사회로 이의철 목사의 신년사, 이종명 목사(뉴욕교협회장), 박은립 권사(뉴저지한인교회장)의 축사, 뉴저지권사협창단의 축가, 정민영 목사의 광고, 정성만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한편 24일 주일 뉴욕일원의 한인 교회들은 눈폭풍 조나스로 인해 주일예배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주차가 마려던 대형교회들은 예배를 그대로 진행했지만 교인들이 눈으로 인해 차를 빼지 못해 예배 참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으며, 예배시간을 연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스트리트 파킹을 해야 하는 작은 교회들은 대부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맨해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많이 출석하는 타임스퀘어처치는 주일예배 캔슬(cancel)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하기도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세상으로 부름 받은 교회”

제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3월 14-16일 주 예수교회

제 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세상으로 부름 받은 교회(The Church Called And Sent To The World)”가 오는 3월 14일(월)부터 16일(수)까지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 소재한 주 예수교회 디아스포라사회선교원(Diaspora Social Mission Center, DSMC)에서 개최된다.

디아스포라사회선교원이 주최하고 주 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주관하며, 센트럴침례신학대학원(CBTS)이 협력하는 이번 세미나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다.

주 강사로는 한국일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가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기 위한 통전적 관점”과 “선교적 목회 리더십”을 강의하게 되며, 신광섭 교수(센트럴신학대학교, 선교학)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오해와 이해, 선교적 교회 대화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 배현찬 목사(주 예수교회 담임)는 “선교적 교회와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목회실제”, 노승환 장로(주 예수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 사명”, 박태은 장로(주 예수교회)가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의 실천”이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 강연을 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노숙자 숙박 및 식사 사역, 장애인 독거노인 주

택보수 사역, 산골 빈민 집수리 봉사, 인종화합축제, 한국 음식문화 축제 등, 주 예수교회의 사회선교 사역을 통해 참석자들은 선교적 교회의 실제적 모형을 배우게 된다.

미주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 가운데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운동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지난 2014년 미 동부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된 본 선교적 교회 세미나는 새로운 이민교회 모델을 찾으려는 참석자들에게 선교적 교회 이론과 실제적 목회 적용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3회째 개최되는 이번 선교적 교회 세미나는 센트럴침례신학대학원(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Kansas) 목회학박사과정 한국어프로그램과 협력해 진행된다. 주최측은 선교학 교수, 박사 과정 학생,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간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선교적 교회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이민교회의 목회적 모델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소개했다.

등록문의는 교회홈페이지(www.ljkc.org)를 방문하거나, 교회사무실(804-560-7500, 7509)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주 예수교회)



미동부기아대책기구 1월 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신년감사에배 및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친목·선교·구제 적극참여...화평과 부흥 이바지

뉴욕장로연합회 신년감사에배 및 이취임식

뉴욕장로연합회가 지난 19일 저녁 대동연회장에서 2016년 신년감사에배 및 제 4대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4대 회장에 손석대 장로와 새 이사장에 박용기 장로가 취임했다.

신임회장 손석대 장로는 취임사를 통해 “뉴욕장로연합회는 장로들의 신앙성숙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상호친목과 선교와 구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계의 화평과 부흥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2010년에 세워졌다”며, 그동안 장로연합회가 감당해온 사역과 준비 중인 사역을 소개했다.

△월례 목요기도회: 매월 3번째 목요일, 교회의 부흥과 갱신, 미국과 조국, 장로의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다민족선교대회: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뉴욕에서 다민족들이 모여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한다. 2016년 다민족선교대회는 8월 28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린다.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 장로들의 신앙성숙과 자질향상을 위해 국제목양사역원(원장 최홍준 목사) 주관으로 5월 3일과 4일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린다.

컨퍼런스에는 최홍준 목사를 비롯하여 5명의 강사가 온다며 많은 참가를 부탁했다. 또 장로들의 실태를 알아야 연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뉴욕교협의 협조로 △장로 인명록' 발간: 장로들의 연합을 위해 뉴욕교협의 협조 아래 정보를 모으고 있다.

1부 신년감사에배는 김영호 장로 인도로 기도 황규복 장로, 성경봉독 민재기 장로, 찬양 뉴욕장로성가단, 설교 이종명 목사, 헌금기도 황석진 장로, 헌금특송 오희평 집사, 축도 윤세웅 목사(KCBN사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교협 회장 이종명 목사는 “갈렙처럼”(수14:6-14)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번치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 힘들고 어렵고 곤은 일을 피하지 않는 영적으로 힘 있고 젊은 신앙,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성경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 뒤에서 봉사하는 섬기는 신앙, 어떠한 도전에도 자신감과 확신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갈렙의 신앙을 가진 장로들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2부 회장 이사장 이취임식은 이계훈 장로 사회로 개회기도 김명신 장로, 회장 임이사 정권식 장로, 회기 전달, 회장 취임사 손석대 장로, 이사장 취임사 박용기 장로, 축가 양근식 장로, 축사 김영환 뉴욕목사회 회장과 김승희 삼일교문, 격려사 한창연 증경회장, 공로패 증정 정권식 직전회장과 김영호 직전 이사장에게,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 후원금 전달 장애인교회 나눔의집 밀알장애인선교단체, 내빈 소개 및 광고, 폐회 및 만찬기도 남후남 장로의 순서로 진행됐다.

3부는 만찬과 함께 필그림선교 무용단의 축하 공연과 손옥아 권사의 예배무용이 있었다.

(유원정 기자)

고난의 신학: 욕기에 대한 묵상

(7면에서 계속)

욥은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서 대속자 되시는 주님을 만난다. 이 대속자는 자신을 대적하는 존재들과는 달리 이방인이 아닌 자기편에서 계시는 분이요 욥은 고백한다. 영경이 우리를 억누르며 절망에 빠뜨려도 우리와 “함께”(with) 또는

우리를 “위해”(for) 계시는 분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다. 희망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희망은 믿음과 사랑과 항상 같이 존재한다. 그리고 희망, 믿음,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홀로 서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하 그렇구나!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7면에서 계속)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외쳤다(삼상17:45). 골리앗은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삼상17:43).

고대의 전쟁들은 단순히 땅따먹기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고, 그들의 신들을 위해 전쟁을 했다. 그리고 이기면 그들의 신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들은 더 힘센 신이 이긴다고 믿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에 분노해서 골리앗에게 나갔다. 하

나남만이 참 신인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골리앗과 대결을 벌인 것이다. 골리앗도 그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의 신들을 믿었다. 그들의 원래 활동무대가 그쪽이었기 때문이다. 가나안에 이주해온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 신들을 믿었다. 블레셋 신전은 그리스 신전이었다면 그때 삼손이 기

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의 빛을 발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다.

[정정: 제 1567호 7면에 게재된 본 원고의 소재목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였기에 바로잡습니다]

james.lee@itsla.edu

등을 밀어서 무너뜨린 이야기를 잘 알 것이다. 2012년의 발굴 작업을 통해 그런 신전의 기둥이 두개 발견되었다. 골리앗의 동네에도 신전이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골리앗은 헬라 신들을 섬겼다.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던 것이다.

jinhlee1004@yahoo.com

(8면에서 계속)

△배려란? 나와 상대방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피주는 것.△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 이 되었는지를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책임이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에 기쁜 마음으로 즉시 따르는 것.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창의성이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 △정직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 3. 오늘 가르친 성품의 사례들을

하루 일과 중에서 찾아서 나누어 봅니다.

아빠가 먼저 하루를 보내면서 생 각한 성품의 점이나 실천한 성품의 사례, 혹은 실천하지 못한 성품의 단점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세요. 그 다음 엄마, 자녀들 순서로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경험한 성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4. 서로에 대한 존재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예를 들면 ‘아빠는 엄마가 아내가 되어 준 것이 무엇보다 감사해, 엄마는 내가 내 딸이 된 것이 감사해’ 라고 하며 서로가 가족이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

잊지 마세요!! 효과 백배를 위해서는 10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요 길고 지루한 이벤트가 되는 것보다 짧더라도 매일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가주교협 시무예배...동명 두 단체 엇갈린 발걸음

김재울 목사 “교회를 섬기는 교협 되게 하소서” 류당렬 목사 “회원자격부터 개혁할 터”

제 46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시무예배가 ‘교회를 섬기는 교협 되게 하소서’라는 슬로건을 걸고 24일 오후 4시 세계아가페선교회에서 열렸다.

김재울 목사(수석부회장)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찬양과 경배, 신앙고백 및 합심기도에 이어 정지우 목사(명예회장)의 개회사, 설교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바울의 소원(빌1:20-21)의 제목으로 “바울의 소원을 우리도 본받아 양심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내세 중심의 삶을 사는 목회자가 되고 교협이 하나되고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기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제임스안(LA한인회장)은 “교계를 동포들이 격려하는 시기이다. 목사님들의 영광을 위해 교협을 섬기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바란다”고 축사의 말을 전했다.



시무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박성규목사(좌)와 시무사를 전하는 김재울 목사

김재울 목사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가슴 아픈 일이 일고 있다. 아닌 것만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부도덕한 일부 목회자들에게 말을 못하는 병폐를 앓고 있다. 할 말을 바로 하는 목회자와 교협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울 목사는 “교계의 양

극화를 개혁하고 통합과 하나 됨을 위해 힘쓰는 교협이 되겠다”고 말하며 목회자와 교협의 협력을 당부했다.

남가주교협은 사랑의살 나눔을 돕고 있으며 부활절, 광복절 연합예배와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대회를 비롯한 많은 사업계획이 있음에 발표했다. 박 교협은 총회의 어려움을 거쳐 현재 정지우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하고 수석부회장 김재울 목사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13일 LA한인타운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추대된 류당렬 목사는 모 언론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재울 목사에게 여러 차례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래야 김 목사의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차례나 거절당했다. 결국은 급하게 총회 공고를 하고 총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류 목사는 “지난달에 열린 총회는 무효화 된 것이기에 이날 모임은 임시총회가 아닌 제46차 정기총회”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에도 남가주교협은 여러 번 분열됐다가 통합되곤 했다. 이번에도 나중에 때가 되면 두 단체가 합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가주교협은 정관자체가 부당하다. 현장에서 20달러만 내면 누구나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다. 현 정관대로라면 ‘이단 신천지’조차도 수십 명을 데리고 와서 20달러씩만 내면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다는 말 아닌가? 다양한 교단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각 교단별 총대 제도를 부활시켜 우선 총회 회원자격부터 개혁할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성총정, 구기조 목사 등 9명이 참석했으며 표세홍 목사가 류 목사를 회장에 추대하고자 동의를 제정을 받아 결의했다.

안건토의에서 남가주교협의 회칙을 1999년에 사용하던 회칙으로 환원하기로 결의했는데 이 회칙은 남가주교협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의원을 교단별로 10교회당 1명, 독립교회는 여러 교회가 연합해 10교회 당 1명을 파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석부회장제도가 없다. 회장은 목회경력 10년에, 남가주교협 소속 교단으로서 가입한지 3년 이상이 된 자가 자격을 얻도록 돼있다.

이처럼 엇갈린 동명 남가주교회 협의회 두 단체의 난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고 하나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성자 기자)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수여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16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수여식 총 94명에게 14만8천4백 달러 지급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는 ‘2016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을 24일 오후 4시30분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은 장애인 장학생과 근로복지생, 꿈나무 장학생, 한국 장학생, 제3국 장학생, 장애인선교사역자 육성장학금 등 총 94명에게 총 14만8천4백 달러가 지급됐다. 장학기금은 2015년 제18회 밀알의 밤을 통해 조성됐다.

주최 측은 “2016년도 많은 장애인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게 됐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의 헌신과 사랑으로 마련했기에 더욱 더 뜻 깊은 자리이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다”고 밝혔다. 남가주밀알 이사 심상은 목사의 사회와 남가주밀알 선교단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은 남가주밀알 이사 알렉스 유 집사가 기도, 미주밀알 이사장 김영길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정 장로 (Tayco Engineering 대표)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밀알장애인장학복지위원회 장학위원장 이종수 장로 인도로 장학금수여식을 거행했으며 장학생 대표 예니 구 자매가 수상소감을, 데이빗정 형제가 특송했다.

이날 행사는 남가주밀알이사장 남성수 목사(OC한인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어릴 적부터 십자가군사로 교육”

토렌스조은교회 설립25주년 및 교육관 입당감사예배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바울 목사)는 교회설립 25주년 및 교육관 입당 감사예배를 24일 오후 5시에 개최했다.

김바울 목사는 “모든게 주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말하며, “교육관은 어린이들을 어릴 적부터 십자가군사로 단단히 세워나가는 나무가 될 수 있게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김바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acts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민승배 목사(메이츠채플 조은교회 담임)가 기도했으며 예배에 찬양팀이 찬양했다.

이어 본 교회 연혁을 동영상으로 소개했으며 박성근 목사가 ‘본래적 소명을 이루라’(벧전 3:8-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성근 목사는 “토렌스조은교회가 25주년을 기점으로 더 좋은 교

회되길 축원한다. 하나님나라가 성취되고 이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 둘째, 바른 것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한다. 셋째, 소망의 이유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씀에 이어 정성모 목사(보리타한인교회, 남침례회 남가주한인교회 협회장), 박해성 목사(남가주웨슬리교 회),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축사를 전했다. 본 교회 K12, 3-5학년 학생들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또한 이날 25주년 기념패를 이상복, 안영호, 이석희 안상우 장로 등 네 가정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김바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정지운 목사 화보출판 기념회

정지운목사가 자신의 지나온 40년의 발자취를 사진으로 묶어 출간하고 30일(토) 오후 3시 성서장로교회(담임 ...)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문의: (213)249-0771

미주복음방송 창립25주년 감사예배

미주복음방송(사장 임순덕 장로) 창립 25주년기념 감사예배가 2월 11일(목) 오후 5시 나성동산교회(담임 한기형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13)381-1190

담임목사 청빙

KAPC(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소속 동문교회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담임목사 경력 5년 이상, 또는 부목사 3년-5년 목회경력이 있는 이중언어 가능한 자. 이력서와 신앙고백서, 목회비전, 졸업증명서, 안수증명서, 설교CD 2회분을 1901 Beverly Blvd, LA, CA 90057로 제출하면 된다. 전화 문의 사절.

총만교회 찬양콘서트

세리토스 총만교회(담임 김기동 목사)는 31일(주) 오후 1시 최명자 사모를 초청, 이민자를 위한 위로와 소망의 찬양콘서트를 개최한다. 최명자 사모는 CCC간사를 역임했으며 5000회 이상 국내 및 해외 찬양집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문의: (714)262-1428

LA연합감리교회 설립 112주년기념 말씀 페스티벌

LA연합감리교회(담임 이창민 목사)는 설립 112주년을 맞아 말씀 페스티벌을 2월 5일(금)-7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 김기석 목사(정파교회). ▲문의: (310)645-3699

행복나눔 전도축제

장경동목사(중문교회)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전도축제가 1월 31일부터 2월7일까지 아름다운교회(담임 이동준 목사), 생수의강선교회(담임 안동주 목사),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각각 개최된다. 본 전도축제에는 장경동 목사 외에 장준식 목사(문막드림교회), 김호민 목사(관능교회)가 함께 단에 선다. ▲문의: (949)250-1111 이동준 목사, (562)653-0168 박훈 목사, (213)749-45009 김인찬 목사

선교침술강의

라파선교회(회장 오덕상 장로)가 선교를 위한 ‘침술강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선교회 회장이며 오덕상한의원 원장인 오덕상 장로가 직접 강사로 서며 2월 4일부터 4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실시한다. 장소는 새소망교회(2975 Wilshire Bl #680). ▲문의: (213)703-0920

새소망장로교회 신년특별부흥성회

파사데나 지역 새소망장로교회(담임 박장순목사)는 신년특별부흥성회를 개최한다. 29일 오후 7시30분, 30일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31일 오전 11시. 강사는 이용남목사(서울 장석교회 원로). ▲문의: (626)577-0191



토렌스조은교회 창립 25주년 및 교육관 입당감사예배에서 순서말은 목회자들이 교육관입당을 위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인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lgoc.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8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예배: 오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특별예배: 오전 5:30 평일특별예배: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Dr.,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예배: 오후 7:00 영인예배(장소:KDC, 링컨드림센터)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주일예배: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aks.org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등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stm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행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서비스),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예배일)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 오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주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8:00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호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전 11:30 주일예배 5부: 오전 11:30(청년)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인예배: 오후 1:00 평일예배: 오후 1:00(수-금) Tel: (949)854-4010,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인예배: 오전 2:00(대학부) 주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공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380-0071, Cell: (213)215-8523 38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얼빈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청년) 수-금요일예배: 오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10: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Fax: (949)857-9472 5101 Walnut Pl., Los Angeles, CA 9000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민중선교)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토요일예배: 오후 3:00(월-토), 6:00(토) www.graceml.com Tel: (714)446-8200, Fax: (714)446-8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생명대명사: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n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1:45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www.socalsamsonchurch.org Tel: (714)646-923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cornestonet.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3400 246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청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청년)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oc.com Tel: 310-370-50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mission 선교의 창 (47)

시니어(Senior)를 통한 세계선교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누군가 인생을 축구경기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예선전, 전반기, 후반기, 연장전이 있다는 것이다. 보통 태어나서 20세까지는 부모와 선생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예선전에 해당된다. 20-40세는 혈기왕성한 전반기이고 40-60세는 사회의 중견인으로서 결과물을 내야 할 후반기이다. 그리고 은퇴연령인 60세 이후는 연장전이라고 말한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 또 다른 선교적 관점도 있다.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반기는 자아 중심의 성취를 위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후반기는 하

고층건물은 지하의 기초공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문명은 시니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터에서 발전되어왔다. 교회적으로도 시니어들은 헌신과 수고의 몫을 다 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부흥 된 한국교회도 없었을 것이다. 현대 지금 시니어들은 할 일이 없다. 갈 곳도 없다. 기껏해야 맥도날드에서 동료들끼리 무료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이나 여행 등으로 소일하고 있다. 이는 시니어 입장에서 불행이고 교회나 국가 차원에서는 손실이다.

노익장을 과시한 인물들은 수없이 많다. 생물학적 나이는 그야말로 나이일 뿐이다. 젊다고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었다고 일 못하는 것도 아니다.

시니어들의 장, 단점

첫째, 시니어들은 가정사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특히 자녀 출산, 부양이나 교육적 책임에서 해방된다. 둘째, 시니어들은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다. 그간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이나 부동산 그리고 연금 등이 있기에 후원비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

선교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미리서부터 희망지역에 단기사역을 지속하고 자기의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 현지에 파송된 후에도 독자적인 사역보다 선임 선교사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도 주도적 사역보다 보조자로서 질서를 존중하며 항상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둘째는 현장에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역할이다. 시니어 사역자들의 체력과 은사에 맞게 적재적소에 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을 같이 하며 종종 사적으로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선교기관의 역할이다. 많은 시니어들이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에게 적합한 사역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선교지에서도 잘 준비된 시니어 인력이 필요함에도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양쪽의 요구를 접목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선교 복덕방 같은 통합적 사역기관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시니어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훈련하여 장, 단기적으로 파송하는 것이다.

맺음 말

아프리카 구전에 의하면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고 했다. 시니어들의 존귀함을 강조함이었다. 이제 교회나 국가가 은퇴한 시니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들을 예우해야 할 노인으로 보기보다는 사명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시니어 계층은 우리 사회에 부담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다. 예나 지금이나 선교의 주체인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나이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주님의 지상명령에는 사실 나이에 대한 언급도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요구되는 것은 자연적 나이가 아니라 순도의 헌신과 준비 됨이다. 그런 점에서 시니어들은 선교적으로 중요한 인재 풀(Pool)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이 오대양 육대륙으로 나가 선입자와 묶어져 하나의 선교 용광로(Melting Pot)를 형성할 때 한국인 세계선교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jsong007@hanmail.net

은퇴한(Retire) 시니어들은 세계선교를 위한 인력 풀(Pool)이다. 그들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사역에 집중할 수 있다. 교회는 시니어들이 사명자로 거듭나도록(Re-tire) 책무를 다 해야 한다.

나눔 중심의 헌신된 삶을 의미한다. 아무튼 현대는 의학과 식품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되었다. 옛날의 60세가 80세가 된 것이다. 요즘은 누가 60세에 환갑잔치를 하는가? 문제는 사회구조이다. 인간의 생애리듬과 수명은 확연히 달라졌지만 그 구조는 산업화 시대의 형태와 별로 차이가 없다. 한국에서는 보통 50대에 은퇴를 한다. 60대를 넘을 경우 눈치 밍을 먹어야 한다. 교회 안에는 어떠한가? 사회에서만큼 차별은 없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냉대나 간간 자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설 마 땅히 자리가 마땅치 않다. 이래저래 시니어들의 고독과 번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시니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국가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계층에 대한 선교적 방안은 무엇인가?

시니어들의 역할 사례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어떤 직업보다 많은 격무에 시달리며 세계를 여행해야 한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근자에 미국인의 가장 사랑을 받은 대통령은 레이건이다. 그의 업적 중 대표적인 것은 1978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중거리핵전력폐기조약'(INF Treaty)을 맺어 냉전을 종식시킨 것이다. 그는 제40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1981년-1989년까지 재임했다. 이때 나이는 70-78세이었으며 연임까지 했다. 한국의 김대중 씨는 15대 대통령이었다. 그는 IMF를 해결했으며 남북 화해를 시도했다. 그의 재임 기간은 1998년 2월-2003년 2월까지이다. 나이로는 74-79세였다. 정주영 씨는 현대그룹의 창업주이며 한국 산업화의 기수로서 대표성을 띄고 있다. 그가 세계의 이목 가운데 1998년 6월 16일 판문점을 통해 통일 소 500마리를 끌고 북한으로 갔다. 이 때 그의 나이는 83세였다. 그는 나이 들어갈수록 더 왕성하게 일을 했다. 방지일 선교사는 103살까지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러 곳을 순회하며 말씀을 선포했다. 그분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생생하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 갈릴은 85세에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120세 까지 사명을 감당했다. 이 밖에 도

도 된다. 셋째, 시니어들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 전문성이나 기술 등은 선교지에서 귀하게 쓰일 수 있다. 넷째, 시니어들은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 가까이는 가족들로부터 친지나 교우들 그리고 사회활동에서 알게 된 죽마 교우들이 있다. 시니어가 선교지에 가있으면 자연스럽게 인적 자원들이 연결되기 마련이다. 다섯째, 시니어들은 종말론적 시각이 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를 위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시니어들은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다. 이에 비해 그들은 단점도 있다. 즉, 현지 언어학습이나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건강문제로 자주 귀국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고착화된 사고나 권위의식이 있다. 수직적 관계중심의 한국문화와 정서에 익숙해있기에 그것이 자칫 젊은 선교사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크리스천 시니어들에 대한 선교적 대안

첫째는 시니어 자신들의 역할이다. 본인 스스로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며 설계를 해야 한다.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줄 수가 없다. 구체적인 은퇴 이후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만일 은퇴 후

독자 투고

김원주 장로
(월서크리스천교회)



신년기도

시간의 주인이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해에도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때로는 믿는 자를 연단하셨지만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으며, 환란 중에도 은혜로 붙잡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절망에 찬 마음으로 엠마오 길을 걸어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셔서 눈을 밝혀주시는 주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2016년 새해 첫 주님의 날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기뻐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로 만나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을 축복의 장으로 인도하시어,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방해하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사탄마귀의 계략에도 내가 먼저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혼란주의 신앙이 아닌 순전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크리스천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관심 갖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므로 거짓과 혼란과 폭력과 투쟁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확장하고 머무르며 가르쳐 하늘의 평화와 구원의 기쁨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위에 함께하셔서 세상에 어두운 곳을 찾아, 빛을 밝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워, 회복되게 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 새해 성도님들 각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성취되고, 건강 축복하여 주시며, 새로이 들어 쓰실 직분자들에게 능력 주셔서, 허락하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주시며, 교회 재정 또한 주님 명령하신 일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리운 가족, 친지를 떠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험지에 나가 선교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아시오니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첫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 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화 감동케 하시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연주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흥취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선교 편지

파라과이

2015년, 지난 한 해동안 '남미의 심장' 파라과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와 재정후원으로 동참해주신 동역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역들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2016년 새해에도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정병훈련 & 여성성경학교

파라과이에서는 12월부터 2월 초까지 여름방학 기간입니다. 이때에 할 일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흡연, 음주, 마약, 음란 등 수 많은 죄의 유혹에 빠져 영적으로 방황하며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예배자와 복음전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한 '그리스도 정병훈련'과 '여성성경학교 투어'가 1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병훈련'은 10-15세의 청소년들을 주일학교 전도대원으로 세우는 목적으로 1993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초기에 훈련 받은 15명의 어린이들이 6개월 만에 270명을 전도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기도 했고, 현재 주일학교 교사 대부분이 '그리스도 정병' 출신이기도 합니다.

2012년부터 해마다 1-2월에 걸쳐 진행된 '여성성경학교 투어'에서는 청년들과 함께 어린이 성경학교 프로그램으로 인형극, 워십댄스, 성경 등을 준비하여 지방을 돌며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해는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총 45명의 청년들이 3개 도시를 순회하며 1400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016년 1월에도 진행될 '여성성경학교 투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관학교 AMA

2015년은 주의 제자들을 더 많이 양육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향해, 말씀과 함께" (For Christ, To the World, With the Word) 슬로건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왔습니다. 2011년에 시작한 '선교사관학교'는 지난해 2월에 새로운 시즌을 열게 되었고, 현재 3명의 청년들이 훈련 받고 있으며 교회의 핵심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관학교는 주님께 헌신한 20세 전후의 청년들을 파라과이와 남미의 영적 리더로 세우기 위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전인격적인 영성 훈련을 위해 교회에서 학습하는 것이 원칙이며,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교 과정을 병행합니다.

스니폴라스(22세): 청년부 회장, 주일학교 코디네이터, 교회 행정간사
 △알렉산드로(22세): 찬양팀 리더, 빈민촌 무료급식 팀장
 △조니(25세): 2016년 1월 선교사관학교에 입학, 파라과이 장로

교 신학교 입학 예정.

3월부터 청년조직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매주 토요일 오후 청년 전도를 나갔습니다. 매 주마다 30명이 넘는 전도대원들이 모였고, 빗속에서도 22명의 청년이 새롭게 출석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총 194명의 새로운 청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도를 통해 뿌려진 씨앗들이 2016년에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성수련회 '하나님의 만남'

생명의샘터교회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매해 정기적으로(2-3회씩) 영성수련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을 전도하여, 2박3일 동안(현재는 1박2일로 변

서 참 자유를 맞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참석자들이 가족과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히고 있습니다.

청년전도집회 & 24주년 특별예배

파라과이 청년의 날(9월21일)을 맞이하여, 청년 전도집회가 지난 9월 26일에 열렸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청년전도와 두 차례의 영성수련회를 통해 변화된 청년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람을 모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집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캠페인도 가졌습니다(7개 학교, 총 14차례).



경) 오로지 말씀, 기도, 예배에만 집중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회개와 고백과 흥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만큼, 매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구원의 확신, 회개, 내적 치유, 거듭남을 체험했으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대비해 섬김이들은 최소 40일 전부터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합니다.

영성 수련회를 통해 주님 안에

한 달 전부터 비가 예보되고, 집회 당일 아침에도 비가 내렸지만 늦은 오후에 내린 보슬비를 끝으로 비가 멈추면서 신실한 응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는 비구름이 걷히고 달이 모습을 드러낸 밤하늘을 바라보며, 집회에 참석한 400명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샘터교회 24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예배가 있었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특별공연을 준비하였고, 성

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성경을 선보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디언추장학교 EDELIN

인디언추장들을 변화시켜 부족을 변화시키기 위한 '인디언 추장학교(EDELIN, 에델린)'이 10월 26-30일, 꼬로넬 오비에도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제 19차 에델린에는 총 44개의 마을을 대표하는 62명의 추장들이 참석하여 농업, 임업, 양돈, 보건위생 등의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델린 첫날 아침까지 비가 멈추지 않아서, 날씨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추장들도 많았습니다. 인디언 마을은 도로사정이 열악해서, 비가 오면 길 위에서 말이 묶여버리거나 아예 마을 밖을 못 나오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에델린을 간절히 기다려왔던 추장들이 실망하고 슬퍼하는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제 19차 인디언 추장학교에서는 특별히 추장들의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의에 집중하고 질문하는 모습들에서 그들의 진지함과 열의가 묻어났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오전에 예정되었던 추장들 간의 축구시합을 취소하고 금연 및 금주에 관한 강의를 추가 개설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에델린 수료식에서 기타, 병아리, 선글라스, 농기구, 샌들, 구제우, 식료품 등을 한아름 받아 든 추장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부족으로 돌아갔습니다.

성 바울 초,중,고등학교

지난 1995년, 생명의 샘터교회 유치부실에서 시작된 '성 바울학교(St. Paul School)'가 지난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학교 건물을 세우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의 명문 그리스도교 학교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지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파라과이의 중산층들도 타격을 받으면서 여러 사립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문을 닫는 학교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에서도 지난 한해 졸업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새 학기를 준비하는 지금 신입생 모집과 교직원 총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단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학교운영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 힘든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학특성화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교육현실이 열악한 파라과이에서 성 바울 학교가 하나의 롤 모델이 되어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양창근 선교사
 ckyang58@hanmail.net

선교 편지

동아프리카 케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By the Grace of God... 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고전 15:10).

생명의 물예수님의 샘물 만들기 "우물 헌정식-나록 올페테시"

저희의 복음개발 사역중의 하나인 우물개발 사역으로 나록 올페테시(Olpetesi, Narok) 우물 헌정식이 지난 12월 3일 우물 개발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지역 군수와 추장이 참석한 가운데

완공된 우물을 헌정하였습니다. 이 지역 지층이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의 배설물로 인해 주민들이 그동안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 개발된 우



물을 통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이 지역의 우물개발은 한국 안산동산교회 선교부의 기도와 후원으로 진행되어 완공하였습니다. 기도와 함께 사랑을 보내주신 안산동산교회 선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역은 저희의 복음사역과 함께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올로마이아나 교회건축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딤후 3:15).

사이 올로마이아나(Olomayana)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예정된 건축지역인 루히루의 교회 땅이 주변의 개발과 토지 조성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을 할 수 없기에 교단 개척 선교단의 권유에 따라 맞사이 지역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새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교회 건축은 미국 시카고에 소재한 그레이스교회(원종훈 목사님)의 후원과 기도로 건축 되어집니다.

이 지역은 POMC(Presbyterian Outreach Mission Church)의 중

심지입니다.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완공되어지고 이 교회가 지역 지역에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지며, 안전하게 공사가 잘 마무리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간목회 10월호-선교적 전망 한국에서 발행되는 "월간 목회" 10 월호에 저희들의 케냐 선교사역 활동 화보와 저의 글이 실렸습니다. "동부 아프리카의 선교적 전망과 과제"라는 글입니다.

동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또한 정보통신의 중심지로 아프리카의 관문으로 교두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적 측면에서 볼 때 동부 아프리카는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오일 달러를 앞세운 모슬렘의 강력한 포교 세력과 주님이 오시기전 전세계를 복음화 한다는 기독교의 선교가 맞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펼쳐지는 저희들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2015년 한해를 시작한 것이 었 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편 90:12) 말씀처럼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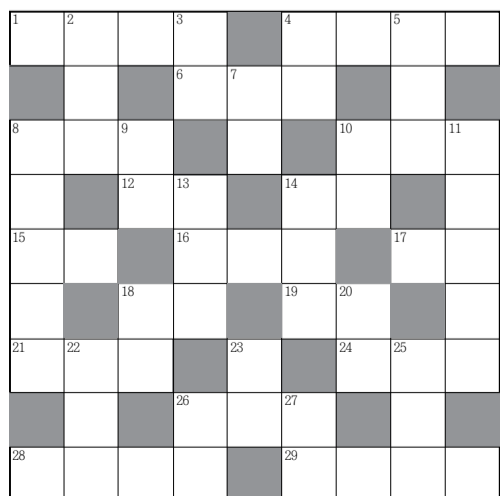
금년 한해에도 많은 사역들이 선교지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기도와 함께 시작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바울이 고백한 고전 15:10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저희를 위하여 기도와 함께 사랑을 보내 주신 여러분들의 은혜라 여기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6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강인중 선교사
 missionkenya@gmail.com

십자말 • Cross Word (113)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가로 푸는 열쇠>

1.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백부장 율리우스가 소속한 부대명(행27:1).
4. 시편 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OOOO시니"
6. 다른 나라 가운데(겔6:8).
8. 다니엘이 잡혀 이 속에 들어갔지만 까맣지 않았다(단6:7).
10. 그의 모든 OOO(시148:2).
12. 뱃속(눅1:41).
14. 날이 밝을 무렵(마28:1).
15.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섬(계1:9).
16. 합의제 법원에서 합의제를 대표하는 법관(행18:15).
17. 인류의 첫 번째 여자는?
18. 삼위일체 중 "가득한 아들"
19. 어머니의 자매(요19:25).
21. 주되는 일이나 물건에 떨어 붙은 것(민1:50).
24. 다윗의 아들 중 가장 준수함. 부양에게 반역. 나무에 달려 죽음(삼하14:25).
26. 석회암이 변하여 된 매끄럽고 아름다운 돌(에1:6).
28. 작은 일을 크게 허풍을 떨어 말함(고사성).
29. 양의 뿔로 만든 악기(수6:4).

<세로 푸는 열쇠>

2. 죄악에서 인류를 구원해 준 만유의 주 그리스도(사49:7).
3. 하맛 왕인데 저의 적 하맛에셀을 다윗이 파했을 때 축의를 표했다(삼하8:9).
4. 열마동인이 지난 뒤(마20:16).
5.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눅1:2).
7. 미리 막아서 지킴(느4:9).
8. 선지자 엘리야에게 공개하였다가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넘치는 축복을 받은 여인(왕상17:9-10).
9. 항복하거나 힘에 겨워 풀이 얹드림(시18:39).
10. 사신이 받은 명령(행20:24).
11. "주는 평강이시니"(사6:24).
13. 양면의 분별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사람(사59:16).
14. 집 지을 때 흙 따위를 바르는 사람(왕하12:12).
18. 성질과 됴됨이(왕상2:4).
20.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당시에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출15:15).
22.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곳(출25:17).
23. 겨루거나 싸워서 이김(골2:15).
25. 기드온에게 피살된 미디안의 왕(사8:12).
26. 거듭된 세대(눅1:50).
27. 서쪽으로 넘어가는 해(수10:26).

십자말 정답



인민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02)

7. 인민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인민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26)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오늘은 기본적인 철학적 담론들 중 두 번째로 가치론(Axiology)이라는 범주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치론(Theory of Value; Axiology)이란 가치란 무엇인지, 가치의 본질은 무엇인지, 가치와 사실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들을 탐구하고 다루는 철학의 한 범주입니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가치관 정립에 관여함으로써 모든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범주이겠으나, 우리 한인 교회교육에 있어서 특히나 중요한 범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한인들은, 특히 한인자녀들은 한국과 미국의 양 문화의 서로 다른 삶의 가치체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양 문화의 서로 다른 가치 체계들이 충돌하여

맘에 드는 쪽으로, 혹은 상황에 따라, 혹은 가장 많은 사람이 행복한 쪽으로 선택하여 살면 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대주의적 가치관은 모든 문화적 유산들에 대한 존중, 차별 없는 평등한 평가, 그리고 진정한 상호적인 배움 등이 그 가치의 골자를 이루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담론들과는 구분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모든 종교에 그 나름의 진리가 있으며 각각 구원에 이르는 길이 제시되어 있다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종교 다원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은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무리 잘 교육하려 해도 그간 부모님들에게 받은 그릇된 가치관과 그에 따라 살아 온 신앙관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선점하였다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돕기가 매우 힘들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에 사역자들은 그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한인 어른 성도들에게도—한국의 어른 성도들도 물론—하나님의 진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삶의 가치체계 및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성경적 가치관을 교육적 기초로 삼아 그 머리와 마음과 삶에 새기도록 하는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교육적 기초로 삼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대하여 어떤 가치로

성경은 모든 삶과 학문적 이슈 가치 판단의 유일한 기준 다양한 문화상황에서 혼란스런 자녀에게 참 진리 가르쳐

극심한 혼란을 겪으면서 말입니다. 또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들을 경험하며 더 많은, 상처되는 가치들을 만나면서 과연 진정한 삶의 가치란 무엇이며,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에 그들은 늘 자신의 삶을 지탱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옳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줄 가치의 기준을 그 누구보다 더 열망하며 이에 대한 점점 커져가는 절박한 내적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모른지기 그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이라면 그들이 열망하는 그 가치의 기준을,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성경에 근거한 가치론을 이해하고 이를 그 교육에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세속적 사변과 가치 체계가 아닌 성경적 가치 체계 및 기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만 그들이 가진 다양한 가치론적 질문들에 성경적인 올바른 해답을 추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오늘날 세속적 학문들이 가장 신봉하는 가치론은 바로 상대주의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양 문화 속에서 살며 또한 다양한 문화적 영향 가운데 살며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자녀들을 더욱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참된 진리로부터 멀어지도록 호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따라서 절대적 가치판단의 기준도 없으며 그냥 네가

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삶의 가치체계 및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성경적 가치론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질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속적 성공중심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하면 그렇지 않던, 거의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은—한국의 부모들도 더 말할 나위도 없이—그 자녀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남들 앞에 평평거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여기며 이를 자녀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쏟아 붓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인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과 관련된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한인 이민자들의 이민 이유가 자녀교육 때문이라는 통계도 이와 맞물려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인지 일례로,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성수주일의 가치는 그냥 바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로써 자녀의 생각과 신앙 습관 안에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성공에 우선순위를 두게끔 장려하면서, "주님의 날," "예배," "기독교적 필요우심," "성경공부" 등이 가지는 그 소중하고 귀한 가치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에 사역자들이 그와 같은 가치들에 대해 설명할 때 자녀들은 가치 혼돈을 느끼게 되며, 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이 무어라 가르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명확하게 선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세속적 가치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증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입니다. 상대주의 및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하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절대성과 그 구속의 진리를, 그리고 성공지상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을 운영하고 성취하는 주되신 하나님과 그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방향을,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성경의 내용, 가르침, 그 의미들, 및 올바른 해석들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른 성도들에게 차근차근 잘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성경적 가치관이란 그 어떤 "~론"들이 아니라 성경말씀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단 하나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진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자신이 편찬한 잡지 "기준(The Standard)"을 통해 강력히 피력했던 것처럼,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모든 인생사 및 삶의 문제를 그리고 다양한 학문적 이슈들에서 그 가치를 판단케 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의 출발점이며 그 내용을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sinaichung@yahoo.com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월 화목케하는 마음(마5:9)찬409장

사람 관계에서 누릴 셋째 복은 이웃과 화평하는 마음입니다. 첫째,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에서 나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됨은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됩니다. 그 공로를 믿는 자만이 이웃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모든

영역에 주로 인정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에 신실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 위임령으로 온 세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온 세상에 들어버시디.

화 고난을 견디는 마음(마5:10-12)찬197장

경건하게 살고자하는 자에게 고난이 따름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대치하는 세상에서 고난을 견디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할 복입니다. 첫째,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여기 의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떤 종류의 고난입니까? 육하고 박해

하고 복음을 거슬러 온갖 악한 말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억울하고 까닭 없는 애매한 고난이 몰려옵니다. 셋째 어떤 복을 얻습니까? 천국과 천국의 상급을 얻게 합니다. 성령 안에 임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합니다. 금년에 앞서 간 전진들이 견딤으로 이룬 복음을 우리는 이루어야할 사람들입니다.

수 세상의 소금(마5:13)찬88장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는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신자의 신분에 맞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 세상의 소금이란 노력함으로 되어지는 것보다 이미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리에 부름 받았다는 뜻입니다. 소금이 녹아 음식에 영향을 미쳐 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쳐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임

니다. 이것을 덕이라고 할 수 있고 영적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안되는 것도 악인들의 책임이지만 세상의 모든 부패성의 일차적 책임이 오직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알고 복음화 하는 일에 심혈을 쏟아야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 능력의 길입니다.

목 세상의 빛(마5:14)찬259장

세상의 소금이 내적 사명을 강조한 것이라면 세상의 빛은 외적 사명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내가 노력함으로 그제서야 빛이 됨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되어 세상에서 빛으로 서있음을 가리킵니다. 첫째, 신자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은 오직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둘째, 빛의 삶

이란 착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착한 행실은 오직 새 성품에서 나오며 의로움과 진실함과 연결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는 일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이는 늘 표준에 이르도록 오직 하나님에 친히 빌 하십시오. 그것을 향해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금 왕이 오신 목적(마5:17-18)찬89장

그 나라 왕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려 오셨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모든 계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합되고 완성되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첫째,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613개 조항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생활과 관련됐으나 그 기본인 의와 인과 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을 안 자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핵심을 성령으로 생활에 성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란 그리스도의 새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둘째, 선지자의 완성입니다. 선지자는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의인 신을 상황에 따라 선포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사역을 위해 부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실체로서 하나님의 의를 복음 안에서 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신18:18)라고 주장했습니다(행3:22). 그 왕이 오신 목적을 내 것으로 삼아 그것을 위해 살아갑시다.

토 성경의 신적 권위(마5:19)찬234장

율법과 선지자는 곧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모든 은사들이 성경에 의존된 사실은 그리스도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영원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의존하는 자는 정말 복됩니다. 어떻게 성경을 대할 때 유의합니까? 첫째, 작은 한 마디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작은 말씀 하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늠합니다. 세미한 주의 음

성을 듣는 자가 복됩니다. 둘째, 행하며 가르쳐야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분을 보이셨고 사도들이 강조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내가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섬김은 이 노선을 따라야합니다. 그때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5-7767, HP. (01)237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2-2643-3181~3, Fax. 2648-4662 군포시 금정동 870-5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l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철야예배를 위한 헌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 오전 5:00 수요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2동 520 (142-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0-99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포동 416-4(404-270)	승등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82)2-32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신사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7길 29(남대문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침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A(10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특별기고



최순환 목사
미주킹덤드림인터내셔널 디렉터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청년부 목사

청년을 살리자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많고, 봉사 현장에 많고, 선교 참여에 많은 교회, 즉 청년의 활동이 활발한 교회는 예배당 문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역동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는 존재, 교회 자원만 축내는 그룹, 모든 것은 일을 시키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노동력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불링의 점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청년은 오늘날 교회에 킥핀입니다. 한 마디로 청년은 교회의 허리입니다.

역을 준비하였고,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했으며, 자신의 것을 모두 헌신하며 희생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되실 것입니다. 물론 청년들은 미숙합니다. 아직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전권을 주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며 모험일 수 있습니다.

교회 일, 친구를 사귀어,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자 등등" 그럴싸한 이유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인원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명의 청년이라도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기동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 목회자에게 큰 도움이 될 때 교회는 큰 힘을 얻습니다.

청년은 킥핀, 가교그룹 불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링을 시작할 때 가운데만 세계 치면 될 거라고

다. 따라서 청년은 더 이상 교회에서 소외되거나, 이용당하거나,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닌, 교회를 이끌고 가야 하는 강력한 잠재적이며 현재적 리더십이라는 점을 우리 모

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주고 싶었던 마음도 컸습니다. 물론 손해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계약금을 도둑맞기도 했습니다.

교회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청년들은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떠났다 라는 것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심은 갖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해 버리곤 하죠. 또 청년들의 말을 대변해줄 청년목회자가 부족합니다.

청년은 교회를 이끌고 가야 하는 강력한 잠재적이며 현재적 리더십 킥핀·가교그룹 청년에게 교회는 믿어주고 보호해주는 놀이터 되길

오늘날 청년들은 더욱 귀해졌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문화와 트렌드가 따라가기 힘들 만큼 급속도로 변화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제일 앞에 위치한 1번 핀을 집중하여 공을 던집니다. 물론 열심히 공을 던져 양 사이드로 빠뜨려 아무것도 못 미치는 것보다는 좋은 점수가 나올 테지만, 1번 핀만 집중하다 보면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가지의 원칙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선조치 후보고"였습니다. 청년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먼저 조치를 하고, 나중에 일의 진행을 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청년들은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떠났다 라는 것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요즘 같은 시대에는 청년들이 수평 이동하여 다른 교회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교회가 있다면 그곳으로 보내주고 싶습니다.

결론 글을 맺겠습니다. 청년들은 놀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가 청년들의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은 교회에서 구박을 받으며 있을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과거 교회에서 청년들을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실제 불링을 잘 치려면 1번 핀보다는 5번 핀을 집중하여 공략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번 핀은 1번, 2번, 3번 핀 뒤에 숨어 있는 가장 중앙에 위치한 핀입니다.

첫째, 청년들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주 킹덤드림인터내셔널(Kingdom dream int)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숙함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보호하라 둘째, 청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수많은 관찰자들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 교회를 옮기는 이유"를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gksean@gmail.com



Advertisement for '원문 주석 성경' (Original Text Bible) featuring Hebrew and Halleluiah versions. Includes details about the publisher (Qumran Publishing), the translator (Go Young-min), and the 1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hristian Church. Lists 12 features of the Bible.